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조선후기 장성지역 필암서원의 원임구성과 주도세력의 존재양태

-필암서원『執綱案』분석을 중심으로-

HANSUNG UNIVERSITY

2026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김 찬 울

HANSUNG
UNIVERSITY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권기중

조선후기 장성지역 필암서원의 원임구성과 주도세력의 존재양태

-필암서원『執綱案』분석을 중심으로-

The Composition of Wonim and the Nature of Leading Groups in Pilam Seowon, during the Late Joseon
-A Study Focused on Pilam Seowon Jipgangan-

HANSUNG UNIVERSITY

2026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김 찬 울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권기중

조선후기 장성지역 필암서원의 원임구성과 주도세력의 존재양태

-필암서원『執綱案』분석을 중심으로-

The Composition of Wonim and the Nature of Leading Groups in Pilam Seowon, during the Late Joseon
-A Study Focused on Pilam Seowon Jipgangan-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6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김 찬 울

김찬울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6년 6월 일

심사위원장 조 규 태 (인)

심 사 위 원 권 기 중 (인)

심 사 위 원 윤 성 호 (인)

HANSUNG UNIVERSITY

국 문 초 록

조선후기 장성지역 필암서원의 원임구성과 주도세력의 존재양태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김 찬 울

조선시대 서원은 향촌사회에서 강학과 제향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유교적 향촌기구로서 지역 양반들의 교육과 교화, 그리고 사회적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서원 연구는 주로 향전과 당파적 갈등, 문중화 현상 등에 주목하면서 서원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거나 특정 문중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측면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실제 서원 운영에 참여한 인물들의 구성과 변화 양상, 그리고 운영층의 지속과 변동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영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형성된 연구 성과를 통해 조선후기 서원의 변화상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비영남권 서원에 대한 사례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장성지역 필암서원 『집강안(執綱案)』에

수록된 원임 명단을 분석하여 조선후기 서원 운영층의 구성과 주도세력의 존재양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양반들의 서원 출입 및 참여 양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필암서원 『집강안』은 1670년부터 1900년대 초까지 임명된 원임들을 기록한 자료로, 장기간에 걸친 서원 운영층의 구성과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강안』과 『필암서원지』, 『원적』, 읍지류 및 족보 자료 등을 활용하여 원임의 구성 방식과 성관 분포, 그리고 주요 가문의 참여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필암서원의 원임 체계와 구성 방식을 검토한 결과, 필암서원 원임은 원장·원이·진신장의·유림장의·유림색장·유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직책은 서로 다른 선발 기준과 역할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원장·원이·진신장의는 중앙 관료나 지방관 등 지역 외부 인물을 중심으로 선임한 반면, 유림장의와 유림색장, 유사 등은 장성지역 유림 가운데 선발하였다. 원장의 경우 모두 정3품 이상의 중앙 고위관료 출신으로 확인되었으며, 원이 역시 전라감사와 같은 고위 관료가 주로 담당하였다. 또한 진신장의는 장성 및 인근 지역의 현직 수령이 선임되었다. 이는 필암서원이 지역 양반들만의 향촌기구가 아니라 중앙 정치권과 지방 행정권력까지 포괄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향촌 유림 중심의 운영 구조를 보이는 일부 영남지역 서원과 구별되는 부분이었다.

다음으로 유림장의와 유림색장의 성관 구성을 분석하여 실제 서원 운영층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필암서원 운영에는 다양한 성관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특정 문중이 원임직을 독점하는 양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행주기씨·울산김씨·광산김씨·황주변씨 등 일부 유력 성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원임을 배출하며 운영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 가문은 필암서원 인근에 세거지를 형성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서원 건립 과정에도 깊게 관여하였던 가문들로, 서원 운영에서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행주기씨와 울산김씨는 여러 세대에 걸쳐 원임을 배출하며 필암서원 운영에 꾸준히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주도세력의 존재는 특정 가문의 독점적 운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시기별 원임 구성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기존 유력 성관이 지속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가운데 새로운 성관의 유입과 일부 성관의 이탈이 함께 나타났다. 특히 18세기 후반 김인후 문묘종사 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에는 유림장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과 가문들이 원임층에 참여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혼인 관계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향촌사회 내부의 정치적 동향 역시 운영층 구성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필암서원 운영층은 폐쇄적인 혈연 집단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기존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적 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필암서원에서는 기존연구가 제시하는 양반 출입의 감소나 특정 문중 중심의 재편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필암서원은 중앙 관료와 지방 수령, 그리고 향촌 양반사회를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소수 유력 성관이 운영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양한 양반 가문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를 보였다. 또한 운영층의 변화 역시 향촌사회 내부의 갈등에 따른 급격한 교체보다는 혼인 관계와 정치적 활동, 지역사회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졌다.

본고는 필암서원 『집강안』이라는 인명자료를 활용하여 조선후기 서원 운영층의 구성과 변화 과정을 장기적인 시계열 속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서원을 쇠퇴와 문중화의 관점에서 이해해 온 기존 연구 경향을 보완하고, 호남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조선후기에도 서원이 지역 양반들의 사회적 활동과 향촌 운영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서원(書院), 필암서원(筆巖書院), 『집강안(執綱案)』, 원임(院任), 서원 운영층, 조선후기 서원

목 차

제 1 장 머리말 ····· 1

제 2 장 원임의 역할과 구성방식 ····· 10

제 1 절 원임 선발 규정과 역할 ····· 10
제 2 절 원임 구성방식과 경원장제(京院長制) ····· 17

제 3 장 원임 성관의 구성과 주도세력 ····· 23

제 1 절 성관 구성의 시기별 추이 ····· 23
제 2 절 서원 운영층의 지속과 변화 ····· 32

제 4 장 맺음말 ····· 43

참 고 문 헌 ····· 49

부 록 ····· 52

ABSTRACT ····· 55

HANSUNG UNIVERSITY

표 · 그 림 목 차

[표 2-1] 필암서원「舊院規」원임별 분류 ····· 13
[표 2-2] 필암서원 원장 명단 ····· 18
[표 2-3] 필암서원 원이 명단 ····· 20
[표 3-1] 시기별 필암서원 원임(유림장의, 유림색장, 직월) 인원 수 ····· 24
[표 3-2] 유림장의 시기별 성관(姓貫)분포 ····· 26
[표 3-3] 필암서원 유림색장 성관(姓貫)분포 ····· 30
[그림 3-1] 연일정씨 행주기씨 관계도 ····· 39

HANSUNG UNIVERSITY

제 1 장 머리말

조선시대 서원은 성리학적 정치이념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향촌 흥학(興學)과 선현(先賢)의 존숭(尊崇)을 위해 설립된 향촌 기구였다. 처음에는 향촌 양반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퇴계 이황(李滉)에 의해 제향(祭享) 기능이 강화되었고, 유향소(留鄕所)를 대체하는 향촌기구로 자리잡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1)]

서원의 기능은 크게 강학(講學)과 제향(祭享)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강학 기능은 지역 유생들이 모여 경서(經書)를 강론하고 학문을 연마하는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성리학적 이념과 도덕적 규범을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제향은 지역의 선현을 사당에 배향하고 제사를 올리는 의례(儀禮) 활동으로, 이는 향촌 교화에 근거가 되는 학문적 기반을 형성하고 성리학적 예법(禮法)을 실현시키는 기능을 가졌다.[2)] 이 때문에 양반들은 서원에 출입하는 것으로 성리학을 공부하고 실천한다는 사상에 기반한 사회적 권위를 얻을 수 있었으며, 지역민들로부터 지위를 인정받는 수단으로 여겼다. 특히 사액서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선현의 학문적 위상이나 성리학적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반들의 서원활동에 명분을 더해 주기도 했다.[3)]

이러한 이유로 지역 양반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권위를 유지하고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보전하고자 서원을 건립하고 운영에 참여했다. 지역 유생들이 서원의 원생으로 이름을 기록했고, 유생들의 학문을 지도하는 원임을 선발했으며, 원장을 뽑아 서원 제향을 주도하게 하기도 했다.[4)] 또한 서원은 지역사회의 공론장으로서 기능이 갖추어지고, 지역 양반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양반의 향촌 조직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통문(通文)이나 상소(上

---

1) 정만조. (1997). 『朝鮮時代 書院硏究』. 서울: 집문당.
2) 윤희면. (2004).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서울: 집문당.
3) 일부 연구에서는 사액(賜額)을 국가가 서원의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인식하고, 국가는 사액을 통해 향촌 사회에 권위를 보여주고, 향촌 교화기구로 서원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본다. 이는 곧 사설 기관인 서원이 공적 기관으로 편입되는 하나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신동훈. (2015). 16세기 서원 사액과 국가의 서원 정책. 『역사와 현실』, 98, 267~296.)
4) 이수환. (2001). 『조선후기 서원연구』. 서울: 일조각.

疏)를 작성하는 소청(疏廳)을 서원에 설치했던 것이나 지역 선현의 문집을 공동으로 편찬했던 것, 시회(詩會)나 백일장(白日場)과 같은 학문 교류를 펼쳤던 것, 백성들의 풍속 교화를 위해 효자, 열녀, 충신 등의 포상을 추천했던 것 등을 통해 알 수 있다.[5)]

이처럼 서원은 지역 양반들의 주도적인 참여 아래 양반으로서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는 향촌 조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조선후기 서원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연구자들마다 차이가 있었다. 특히 조선후기 서원의 성격과 기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연구 경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양난 이후 양반들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서원 기능과 역할 또한 쇠퇴했음을 설명한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서원의 기능과 역할은 지속되었음을 설명한 연구이다.

초기 연구들은 대체로 전자의 연구 경향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서원에서 나타나는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서원의 변화상을 그려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 양반들의 단체활동 공간으로서 서원이 가지는 위상이 점차 쇠퇴하였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대표적으로는 서원의 당파적 성격에 주목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6)] 이들 연구에서는 중앙정부가 자파 세력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원의 건립과 사액을 지원했으며, 향촌 사회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특정 당파의 여론을 지지하는 경향이 형성되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서원은 당론을 추합하고 각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제한적인 기능만 수행하게 되었고, 서원이 붕당형성의 근원지로 지적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서원 폐단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다. 그 결과 서원은 내부적으로 당파적 갈등에 따른 분열이 발생하고, 외부적으로 국가의 규제를 받으면서 향촌 조직으로서 기능이 점차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

5) 서원에서 통문을 작성하는 것은 서원을 이용한 지역 양반들의 정치사회적 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로, 통문 내용은 왕의 존호나 복제에 관련된 예론 문제, 대신이나 감사·수령에 대한 비판과 시비, 선현의 문묘배향이나 승출(陞黜)에 대한 찬반, 선현에 대한 변무와 규탄, 명현의 증직(贈職)·증시(證示)·신원(伸冤)·삭직(削職)·추탈(追奪) 등 사문의리에 관한 것, 서원의 건립·사액·이건·중건·추향·위차 문제, 불교·도교·서학 등 이단에 대한 배격, 향강 파괴자나 괴란자에 대한 처벌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춘추제례가 끝나면 유회(儒會)를 가져 서원문제, 지역문제 등을 토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윤희면. (2004). 『앞의 책』. 서울: 집문당.)

6) 정만조. (1997). 『앞의 책』. 서울: 집문당; 이수환, (2001). 『앞의 책』. 서울: 일조각.

조선후기 서원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향전(鄕戰)'이라는 특정 사건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었다.[7] 이들 연구에서는 기존 기득권 양반층인 구향(舊鄕)과 신흥 유입 양반층인 신향(新鄕) 간의 대립을 통해 조선후기 향촌 사회에서 기존 양반층의 향촌 지배권이 흔들리는 모습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향전이 서원에서 발생하였음을 보여줌으로써 양반들의 서원 활동과 향촌 조직으로서 서원이 가지는 위상이 모두 쇠퇴하였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서원 기능 쇠퇴 원인을 문중화 현상에서 찾기도 했다.[8] 이 연구에서는 17세기 중후반 이후 향촌 사회에서 양반층의 지위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각 문중이 결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에 대응하였음을 지적한다.[9] 특히 각 문중은 가문의 위상과 정통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서원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문중을 중심으로 한 서원의 설립과 운영이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원은 특정 문중의 위상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성격이 변화하였고, 이른바 서원의 문중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서원이 향촌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기능하기보다 특정 가문의 위상을 표출하는 장치로 한정되었음을 의미하며, 결국 향촌 조직으로 서원의 기능이 축소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조선후기 서원의 모습을 변화하는 정치·사회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자 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특히 서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배경이 붕당정치 또는 문중화 현상 등과 연관되어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서원을 향촌 사회와 정치구조 속에서 이해하는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특정 사건이나 현상이 조선후기 서원 기능과 역할의 쇠퇴를 보여준다는 전제 속에서 조선후기에도 지속되었던 교육 및 제향 기능이나 양반들의 단체활동 공간

---

7) 서원을 중심으로 향촌 사족들의 향전 사례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정우. (1999). 17-18세기 재지 노·소론의 분쟁과 서원 건립의 성격 -충청도 논산지방 광산김씨와 파평윤씨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88, 209-229; 이수환. (2000). 18-19세기 경주 옥산서원 원임직 소통을 둘러싼 적서간의 향전. 『고문서연구』, 17, 99-128; 배재홍. (2006). 조선후기 삼척의 용산서원과 재지사족. 『대구사학』, 82, 67-111; 정진영. (2015). 18세기 서원 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 -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 서원 건립 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2, 229-268.

8) 이해준. (2008).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9) 위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향촌 양반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진 원인을 크게 사족간의 경쟁과 분기로 향론(鄕論)을 형성할 수 없었던 것, 양난 이후 수령지배체제의 강화로 양반층의 권위가 축소되었던 것, 신향세력(新鄕勢力)이 향촌지배질서에 참여했던 것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이해준. (2008). 『앞의 책』. 서울: 경인문화사.)

이라는 향촌사회에서의 역할 등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정치적 기능이나 사회적 성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서원의 내부적인 운영 방식과 활동,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갈등과 분열이 드러나는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서원을 설명할 수 없으며, 향촌에서 서원의 위상과 역할 및 그 구성원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조선후기에도 지역 유력 양반들의 서원 출입이 지속되고, 향촌 기구로서 역할이 유지되고 있었음에 주목하거나 서원의 운영과 활동에서 드러나는 변화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향촌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전국 각지의 『서원지(書院紙)』나 향촌 고문서들을 토대로 조선후기 서원을 파악해 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10] 이들 연구에서는 각 지역 서원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각종 서원 자료에서 드러나는 운영 방식이나 강학, 제향, 통문활동 등을 시기별로 분석하여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여러 사례들을 제시했다. 그 결과 조선후기 양반들의 서원 출입과 운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서원에서의 양반활동을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관지어 분석함으로써 정치·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향촌 조직으로서 서원의 기능이 지속되었음을 밝힌 연구도 등장했다.[11] 이 연구에서는 숙종·영조시기 서원 폐단 논의와 훼철 조치, 고종시기 전국적인 서원 철폐 정책과 같은 국가적 조치 속에서도 지역 양반들의 요청에 의해 서원이 복구되는 사례가 존재했음을 제시했

10) 서원지 및 고문서를 중심으로 서원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준호. (2010). 서원지 분석을 통해 본 초기 서원의 성격 -죽계지, 영봉지, 오산지를 중심으로-. 『한국학 논총』, 33, 1-17; 이해준. (2011). 노강서원 자료의 유형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1, 153-179; 박소희. (2017). 17~18세기 합천 용연서원의 변무와 활동. 『한국서원학보』, 5, 5-32; 이경동. (2019). 조선후기 여산 죽림서원의 운영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9, 231-260; (2019). 조선시대 해주 소현서원의 운영과 위상. 『한국사상사학』, 61, 241-286; (2022). 조선시대 논산지역 서원의 운영과 특징. 『민족문화논총』, 81, 163-196; 김승대. (2020). 부안 동림서원의 건립과 변천에 대한 연구 -『동림서원지』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0, 211-263; 권이선, 박정민. (2021). 무성서원지의 체제와 특징 -1884년본을 중심으로-. 『강원사학』, 37, 161-186; 장준호. (2024). 영해 구봉서원의 설립 과정과 운영. 『한국서원학보』, 18, 203-234.

11) 안다미. (2023). "조선후기 서원정책과 사족의 서원활동".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다. 또한 지역 양반들은 국가 정책에 일정 부분 동조하면서도 기존 양반층의 권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서원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서원에서의 교육과 제향 및 단체활동이 19세기까지 지역 양반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설명했다.

한편 서원의 재정 운영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서원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12] 이들 연구는 서원이 향촌 조직으로 존속하였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재정자료에 주목하고, 변화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서원의 기능과 역할이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구 성과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 일부 서원에서는 19세기에 오히려 교육과 제향에 사용되는 재정 규모가 확대되거나 서원 재산이 증가하는 사례도 확인된다.[13]

이와 더불어 서원을 운영했던 인물들에 주목한 연구도 진행되었다.[14] 이러한 연구들은 서원에서 작성된 『원임록』, 『원생안』 등의 인명자료를 분석하여 실제로 서원 활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구성과 변화양상을 시기별로 검토함으로써 서원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특정 서원의 운영에 어떤 가문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 개별 사례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인물들의 사회적 배경을 통해 해당 서원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일부 연구에서는 『향안』, 『청금안』 등 향촌 인명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조선후기에도 향촌 양반들의 서원 출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서원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제시하기도 했다.[15]

---

12) 재정 운영을 중심으로 서원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덕희. (2013). 조선후기 지방정부의 서원 재정지원 규모 추정. 『한국교육사학』, 35, 215-240; 정재훈. (2023). 조선후기 용산서원의 운영양상과 그 특징. 『한국서원학보』, 16, 41-66; 이병훈. (2023). 경주 옥산서원의 설립과 재정 운영. 『대동한문학』, 75, 45-84; 이경동. (2024). 조선시대 필암서원의 운영과 재정. 『대동한문학』, 79, 79-120; 최주희. (2025). 19세기 전반 도산서원의 재정 운영 실태. 『민족문화연구』, 106, 327-357.

13) 실제 경북 경주에 위치한 용산서원은 서원이 건립된 17세기 후반보다 19세기에 거접(居接), 백일장(白日場), 순제(巡題) 등 강학활동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크고, 지출 빈도가 높았다.(정재훈. (2023). 앞의 논문. 『한국서원학보』, 16, 41-66.)

14) 원임록, 원생안, 원장안 등 인명 자료를 중심으로 서원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송정숙. (2006). 소수서원 입원록 분석 -16·17세기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34, 64-100; 박현순. (2007). 17·18세기 예안현 사족사회와 향안, 원생안, 교생안. 『고문서연구』, 30, 57-92; 강지혜. (2013). 남원 노봉서원 건립과 운영. 『한국서원학보』, 2, 205-236; 김영나. (2015). 16~18세기 안동지역 사족의 호계서원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73, 115-152; 김명자. (2018). 조선후기 병산서원 원장 구성의 시기별 양상. 『한국서원학보』, 6, 5-41; 박소희. (2020). 17세기 덕천서원 원생의 구성과 변화양상 -『덕천원생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76, 331-365.

위와 같은 최근의 연구들은 조선후기 서원을 쇠퇴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던 기존 연구 경향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무엇보다 『서원지』와 향촌 고문서, 인명 자료, 재정 자료 등 다양한 1차 자료를 활용하여 서원의 실제 운영 구조와 활동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조선후기 서원에서 드러나는 갈등 외에 다양한 원인으로 촉발되는 지속과 변화의 모습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구만으로는 조선후기 서원이 어떠한 공간이었는지를 설명하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첫째, 조선후기 서원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특징을 확립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지역의 사례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존 서원 연구는 대부분 안동, 경주, 영주 등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지역의 서원은 일반적으로 양반층의 향세(鄕勢)가 강하고 사회·경제적 규모가 큰 곳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 서원에서 드러나는 당파적 갈등이나 양반 위상이 변동하는 모습 등을 통해 조선후기 서원의 성격을 밝혀내고자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남지역 중심의 사례만으로 조선후기 서원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6]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지역의 사례를 축적하고 검토함으로써 조선후기 서원의 변화양상과 그 원인을 보다 다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장성의 필암서원은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서원 중 한 곳으로, 비영남권 서원의 운영과 변화양상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조선후기 서원 인식에 대한 재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원 인명자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도 원생안·원임록 등 인명자료를 활용하여 서원의 구성원과 운영세력, 특정 가문의 향촌 내 위상 변화 등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특정 성씨나 가문의 향촌 지배력 변화에 초점을 두었을 뿐,

---

15) 박현순. (2007). 앞의 논문. 『고문서연구』, 30, 57-92.

16) 서원 사례 외에도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향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향촌 사족들의 대립현상에 의문점을 가지고, 지방 양반사회의 서로 다른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정치상황과 크게 연계하지 못했던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향안』이나 『청금록』을 분석한 연구 성과도 있다.(장석현. (2023). 조선후기 임실현 양반사회의 지속과 변화 -『임실향안』, 『임실청금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05, 287-323.)

인명자료 자체를 통해 조선후기 서원에 실제로 출입하고 운영한 인물들의 구성과 변동추이를 장기적인 양상 속에서 검토하는 데는 미흡했다. 서원 인명자료는 서원의 운영과 활동에 직업 참여했던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조선후기 양반들의 서원 출입 양상과 그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선후기 전 시기에 걸친 인명자료를 시기별로 분석한다면, 서원 운영층의 구성변화와 지속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제기되어 온 서원의 쇠퇴론이 실제 서원 운영의 측면에서도 확인되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서원 운영의 변화를 보다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남지역의 대표적 서원인 필암서원을 대상으로 17~19세기 동안의 인명자료를 분석해 조선후기 필암서원 운영층에서 발견되는 특징과 변화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서원의 쇠퇴 및 문중서원화 현상 등을 재검토하고, 비영남지역의 사례를 통해 조선후기 서원의 성격을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필암서원이 위치한 장성지역은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규모가 호남지역에서 중상위 수준에 해당하며, 김인후를 중심으로 하는 뚜렷한 학맥이 형성되어 있어 향세가 강한 지역이었다.[17]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 양반들은 1590년(선조 23) 필암서원을 건립했고, 1662년(현종3)에는 사액을 받았으며, 1796년(정조 20)에는 김인후의 문묘 종사를 이뤄내는 등 향촌 사족들의 지속적인 참여로 지금까지 훼철·철폐되지 않고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18] 또한 필암서원 배향자인 김인후는 호남지역 출신 인물 중 유일하게 문묘에 종사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도 높은 위상을 자랑했다.

이와 더불어 필암서원에는 인명자료 등의 기록물도 다수 남아있다. 필암서원 역대 원장 명단을 기록한 『院長先生案』, 역대 원임 명단을 기록한 『執綱案』, 강학에 참여한 인물들을 기록한 『文契案』, 원생 명단을 기록한 『院籍』 등 인물자료가 존재한다. 또한 필암서원 관련 인물의 비문(碑文), 행장(行狀)이나 원규(院規), 상소문, 간찰 등을 엮은 『筆巖書院誌』 등이 있어 조선후기 동안 서원 구성원의 양상, 운영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7) [부표1] 『官方要覽』 官職 附外官案 全羅道 정리표 참조.
18) 『정조실록』 권45, 정조 20년(1796) 9월 17일 기미.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필암서원에 대해서도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선 필암서원 고문서를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기능이나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선후기 서원 운영의 일면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 있다.[19] 이들 연구에서는 원임의 선발규정과 노비, 전답 등 재정의 관리, 강학·제례·통문·장서 기능 등을 정리하여 필암서원의 운영구조와 사회적 활동양상을 규명하였다. 이 외에도 필암서원의 건축양식이나 재정기반, 서원 노비 관리 형태 등 단편적인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20]

이러한 연구는 필암서원의 운영방식이나 재정구조 등을 규명하는 것에 주목해 조선후기 서원의 운영실태를 밝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향촌사회에서 양반들이 서원 운영에 참여한 방식이나, 서원 운영층의 구성과 활동이 지속 또는 변동하는 등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검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서원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였던 원임(院任)의 구성이 조선후기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암서원 『執綱案』에는 1670년부터 1900년대까지 임명된 원임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 서원 운영층의 구성과 변동추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본고에서는 필암서원 『執綱案』에 기록된 인물들을 분석하여 시기별로 운영층 구성에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필암서원의 인적 구성의 특징을 서술하고자 한다.[21] 또한 필암서원 원임 구성의 장기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조선후기 서원의 쇠퇴 및 문중화 현상에 관한 기존 이해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

19) 윤희면. (2001). 전라도 장성 필암서원의 정치사회적 기능. 『역사학연구』, 17, 59-103; 이경동. (2024). 앞의 논문. 『대동한문학』, 79, 79-120.

20) 필암서원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전형택. (1996). 조선후기 필암서원의 경재기반과 재정. 『역사학연구』, 11, 333-366; 조상순, 이상해. (1998). 필암서원의 건축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7, 63-76; 조상순. (1998). 필암서원 연구 -필암서원지 해석을 중심으로-.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31, 155-181; 문숙자. (2009). 조선후기 노비 가계와 비 -필암서원 노비보 분석을 통하여-. 『여성과 역사』, 11, 133-166; 김봉곤. (2014). 필암서원과 울산김씨. 『한국계보연구』, 5, 57-91.

21) 필암서원 『執綱案』은 본래 1752년부터 1900년대까지 원임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1975년 『필암서원지』가 발간되면서 서원 고문서에 기록된 원임 정보를 참고하여 1670년부터 1975년까지 원임 명단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75년 보완된 『執綱案』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다. 단, 연구 시기가 조선후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1899년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서술한 연구 목적에 따라 2장에서는 인물자료 분석의 선행 과정으로 필암서원 원임 역할 및 구성 방식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원임을 통해 조선후기 서원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원에서 원임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필암서원 각 원임 직책 및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와 원임 선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하고, 실제 서원에서 활동했던 원임층과 그렇지 않은 원임층을 구분하여 필암서원 원임의 구성방식과 그 의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필암서원 원임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을 가계별·시기별로 분석하여 그 결과로 확인되는 변화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장성지역에서 활동하는 양반 가계의 인물들이 필암서원 운영에 참여했던 양상과 시기별로 확인되는 변동 양상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필암서원 운영층의 지속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가문별 원임 배출 비율을 정리하고 각 가문이나 개별 인물이 필암서원 원임으로 선발된 경위를 제시하여 서원 운영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필암서원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HANSUNG UNIVERSITY

제 2 장 원임의 역할과 구성방식

제 1 절 원임 선발 규정과 역할

조선시대 서원과 향교 등을 비롯한 양반들의 향촌조직은 향촌 기득권층의 결속을 유지하고, 향촌에 교화를 실시할 수 있는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그들만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했다.[22] 서원에서는 해당 서원 운영에 참여하거나, 직접적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인물들을 원생안(院生案), 원임록(院任錄) 등에 기록하여 관리해 왔으며, 필암서원에도 『집강안(執綱案)』, 『원적(院籍)』 등이 남아있어 구성원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그 중에서도 필암서원 운영을 주도하는 주도세력과 그 인적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원을 대표하는 직책 및 서원에서의 강학과 제향 등 실질적인 활동을 주관하는 원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필암서원의 원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원 원임이 어떤 존재였는지와 필암서원 각 원임 직책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개별 원임 분석의 선행 단계로 필암서원 원임 직책과 역할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서원의 원임은 서원 운영의 대소사를 주관하고 각종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 실무진이다. 그 업무 내용은 대략적으로 서원의 규약을 단속하는 것, 재정 출납의 책임을 지는 것, 강학과 제향 일정을 편성하고 준비하는 것, 강학 시 원생들을 교육하는 것 등을 말할 수 있다.[23]

서원에 원임을 두어 서원의 일을 주관토록 한 것은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에서부터 확인된다. 1543년(중종38) 기록된 소수서원 「院規」에서는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두어 서원의 일을 주관하는 총 책임자 역할을 맡을 것을

22) 정진영. (1998).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서울: 한길사.
23) 윤희면. (2004). 『앞의 책』. 서울: 집문당.

명시하고 있으며, 유사를 두어 서원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24] 이와 동시에 서원의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멀리에 거주하면 항상 서원을 돌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서원에서 5리 이내에 거주하는 인물을 원임으로 삼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소수서원 이후 많은 서원들이 이 규약을 선례로 삼아 원장, 유사 등을 선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25]

그렇다면 원임들의 향촌 위상은 어떠했을까. 서원 원임은 기본적으로 지역 내 또는 서원 인근에서 그 위상과 입지가 있는 인물을 논의하여 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부터 유사에 이르기까지 사표(師表)로서의 위상이나 사족들의 의견을 규합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족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입지 등을 갖춘 인물이 원임 직책에 선발되었다. 특히 원장은 서원을 대표하는 직책으로 확고한 위상이나 행적을 갖춘 인물을 초청하여 임명했다.

1547년(명종2) 작성된 소수서원 「斯文立議」에서는 원장이 서원 대소사를 전적으로 주관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을 가려 선발하였음을 규정하고 있다.[26] 또한 「道東書院院規」에서는 존원장(尊院長)이라는 규목을 만들어 '원장은 유생 상호간 유대를 주관하고 앞길을 인도해 사기를 진작시키는 존재이며, 유생들은 마땅히 그를 존경하고 모범으로 삼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7]

이처럼 서원에서는 원활한 서원 운영을 위해 원임을 선발했고, 규정을 통해 각 직임을 정했다. 또한 향촌 내에서 일정한 위상이나 행적을 갖춘 인물 중에 원임을 선발할 것을 규정하여 향촌 내 유력 양반들이 서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특징은 필암서원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

24) 周世鵬, 「白雲洞書院 院規」, 1543

25) 대다수의 서원 원임 구성은 큰 틀에서 원장-유사 체제를 따르고 있지만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대표적으로 퇴계 이황이 작성한 「伊山院規」에는 원장에 대한 규정 없이 상유사와 하유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황의 영향을 받은 일부 서원에서는 원장 없이 상유사와 하유사만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16세기 이후 기호-호남지역에 설립된 서원들의 경우 원장, 유사와 더불어 장의, 색장 등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율곡 이이가 작성한 「隱屛精舍學規」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필암서원의 원임구성도 기본적으로 원장-장의-색장-유사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26) 一。院長一人常定。祭祀儒生供饋等事及所屬人物寺刹田畓財物器具院舍閭閣大小事乙。並只專掌。措置檢擧使內乎矣。必以謹信人所不厭人以相承爲齊。(『소수서원등록』, 「斯文立議」, 1547.)

27) 『寒岡先生續集』 권4, 「道東書院 院規」, 1841.

필암서원 원임은 가장 지위가 높은 직책인 원장(院長)부터 원이(院貳), 진신장의(搢紳掌議), 유림장의(儒林掌議), 유림색장(儒林色掌) 및 유사(有司), 장재유사(掌財有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암서원 「舊院規」에는 각 원임에 어떤 인물을 선발하는지와 서원 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28]

一. 원장은 京鄕을 논하지 않고 지위가 높고 덕이 존귀한 자를 薦望한다.
一. 원이는 本道 내에 지위가 높고 덕이 존귀한 자를 薦望한다.
一. 진신장의는 本道 내에 학문에 特秀한 지위가 있는 자를 薦望한다.
一. 유림장의는 道郡간의 유림 중 文行과 信望이 있는 자를 薦望한다.
一. 유림색장 또한 유림 중 文行과 信望이 있으며, 서원 인근에 거주하는 자를 薦望한다.
一. 유사 3인 중 1인은 西齋儒生 중 人品이 謹愼하고 文筭이 優餘하되 院村에 거주하는 자를 선택하여 임명한다.
一. 장재유사는 본래 규례가 없는데 강수청(講修廳)이 설치된 후부터 本孫儒林 중 廉公·富饒한 자를 선정하여 겸임한다.
一. 원장과 원이는 本院을 대표한다.
一. 장의 및 색장은 월별 焚香과 享祀儀式, 財産收支, 事務全擔, 祠院必保, 儒綱必扶를 한다.
一. 유사는 향사시 儀節을 奉行하고, 院內什物 등을 審査保管하고, 日用下記는 일일이 擔任한다.
一. 장재유사는 掌色에 의거하여 재산 收支를 通知하고 모두 認識하여, 잉여는 보관하고, 부족하면 빌린다.
一. 원장과 원이는 임기가 없고, 진신장의는 3년이고, 유림장의와 색장은 3년을 기한으로 하되 성실하고 근면한 자는 再任한다.
一. 유사는 임기가 없으나 허물이 있으면 바꿔 택한다.
一. 장재유사 임기는 4년을 채우고 혹 再任하기도 한다.

28) 『筆巖書院誌』, 卷之一, 「舊院規」; 이경동. (2024). 앞의 논문. 『대동한문학』, 79, 79-120.

〈표2-1〉 필암서원「舊院規」원임별 분류

원임	선발요건		역할	임기
	지역	능력		
院長	勿論京鄕	位高德尊者	代表本院	임기 없음
院貳	本道內	位高德尊者		
搢紳掌議	本道內	有位學問特秀者	月焚香, 享祀儀式, 財産收支, 事務全擔, 祠院必保, 儒綱必扶	3년
儒林掌議	道郡間儒林中	有文行及信望者		3년 (성실하고 근면한 자는 재임)
儒林色掌	院附近居住儒林中	有文行及信望者		

위 내용을 토대로 필암서원 원임을 직책별로 정리해 보겠다. 우선 원장은 서원을 대표하는 원임으로 임기에 제한이 없으며, 경향(京鄕) 출신을 논하지 않고 위고덕존(位高德尊)한 인물을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서원 원장은 서원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 행정사무 집행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며, 서원에서 진행하는 강회, 제향 등 행사에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또한 서원의 기강 확립이나 유생들의 행실 규찰 등을 담당하면서도 구체적인 운영에는 크게 간여하지 않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29] 이러한 이유로 서원 원장은 해당 지역 내에서 특히 위상이 뛰어난 인물을 선발하는 경향이 있었다.[30] 그러나 필암서원은 경향(京鄕)을 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촌 인사가 아니더라도 위고덕존(位高德尊)한 인물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이는 원장과 함께 서원을 대표하는 원임으로 임기에 제한이 없었고, 본도(本道)내의 위고덕존한 인물을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이

29) 서원 원임으로 원장과 유사가 분화하고 서로의 임무가 구체화 되어가면서 실무는 장의, 색장, 유사 등이 담당했고, 원장 및 원이는 점차 운영 전반에 걸쳐 자문을 하는 직임으로 변모해갔다(윤희면. (2004). 『앞의 책』. 서울: 집문당.)

30) 몇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소수서원의 경우 1542년부터 1718년까지 원장으로 선임된 181명 중 48%가 유학(幼學)으로 나타나며, 52%는 생원, 진사 및 문과합격자 또는 하급관료 출신으로 향촌에서 명망있는 인사가 선출되었다. 상주 옥동서원의 경우에도 18세기 원장으로 선임된 89명 중 75%가 향중 인사인 유학(幼學)으로 나타난다.(이수환. (2001). 『앞의 책』. 서울: 일조각; 김순한. (2023). 조선후기 상주 옥동서원 원임의 구성과 변화. 『한국서원학보』, 16, 67-107.)

는 서원 부원장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원장 부재시 원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서원 활동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필암서원 원이 또한 원장과 마찬가지로 서원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선발 요건이 원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원장은 경향을 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반면 원이는 본도내(本道內) 인물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원임을 선발하는 지역적 범위가 좁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필암서원 원장과 원이 직책은 서원을 대표하는 직책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모두 지위가 높고 덕이 존귀한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유림 중 원임을 선발했던 영남지역 서원과는 다르게 출신을 논하지 않거나, 본도 내 인물 중에서 원임을 선발하고 있어 지역 인사를 선발하는데 국한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점은 필암서원 원장·원이 직책에서 향촌 내 인물을 선택하는 것보다 지위 또는 능력에 있어 다수의 양반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원장과 원이가 서원을 대표하는 직책에 해당한다면, 직접 서원의 사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는 장의, 색장, 유사 등이 있었다.[31] 서원에 유사 외에 장의와 색장을 별도로 선발하는 것은 기호-호남지역 서원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32] 이들이 수행하는 서원 실무에는 다양한 사항들이 있는데 제향시 헌관과 집사를 차출하는 것, 제수를 준비하고 참석 요청 통문을 작성하는 것, 원생안·집강안 등 명부를 작성하는 것, 서원 재정의 전반적인 운영, 건물의 수축, 도서의 보관, 강회(講會) 개설 및 과목 선정 등의 업무를 맡아서 진행했다.[33] 필암서원 「舊院規」에서도 이들이 월별 분향(焚香)과 향사의식(享祀儀式), 재산수지(財産收支), 사무전담(事務全擔), 사원필보(祠院必保), 유강필부(儒綱必扶) 등의 업무를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서원의 제반 활동

31) 이경동. (2024). 앞의 논문. 『대동한문학』, 79, 79-120.

32) 향교 교임 구성에서 확인되는 장의, 색장과 같은 명칭이 서원의 원임 구성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이가 작성한 「隱屛精舍學規」 학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것이 서인계 집단의 서원관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는데, 국가의 서원 규제 정책에 따라 서인계 서원이 정부의 서원정책에 부응하여 서원의 자율성을 지양하고 준관학(準官學) 간주하였기 때문에 원임 명칭에 교임 명칭을 적용하였을 것이라 제시하였다(윤희면. (2004). 『앞의 책』. 서울: 집문당.)

33) 윤희면. (2004). 『앞의 책』. 서울: 집문당.

을 주관하는 직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34]

필암서원 장의 직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진신장의와 유림장의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진신(搢紳)은 벼슬아치 또는 수령을 뜻하고, 유림(儒林)은 향촌 내 유학자를 뜻한다. 필암서원 「舊院規」에서도 진신장의는 본도내(本道內) 인물 중 학문에 특수한 지위가 있는 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유림장의는 도군(道郡) 간의 유림 중 문행과 신망이 있는 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발 대상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필암서원 진신장의와 유림장의에 선발된 인물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 보다 명확하게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필암서원 『執綱案』에는 17~19세기 동안 진신장의로 기록된 인물이 59명이 등장하고, 유림장의는 90명이 등장한다. 또한 선임 당시 관직이 있었을 경우 이름 하단에 관직을 부기한다. 『執綱案』에 따르면 필암서원 진신장의는 전체 59명 중 56명이 장성부사, 담양부사, 김제군수, 남평현감 등 장성 또는 인근 지역에서 수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에 반해 유림장의는 전체 90명 중 약 4% 정도인 4명만이 전현감(前縣監) 등의 관직을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이 생원(生員), 진사(進士), 유학(幼學) 등에 해당한다.[35] 이를 통해 진신장의는 장성 또는 인근 지역에서 현직 수령으로 재임 중인 인물을 선임하고, 유림장의는 향촌 유림 중에서 선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필암서원 진신장의가 서원의 실무진에 해당하기보다는 서원을 대표하는 직책에 가까운 이들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이들은 원장이나 원이의 부재시에 서원의 활동이나 재정 운영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34) 掌議及色掌。月焚香及享祀儀式。財産收支。事務全擔。祠院必保。儒綱必扶事。(『筆巖書院誌』, 卷之一, 「舊院規」)

35) 아래 표는 필암서원 「執綱案」에서 17~19세기에 필암서원 원임에 선발된 인물들을 동일 직임에 중복으로 임명된 것을 제외하고 각 인물들의 전·현 관직을 조사하여 그 비율을 정리한 표이다.

구분	인원 수(중복제외)	前現 관직자 수	관직자 비율	비고
원장	7	7	100%	정3품 당상관 이상
원이	5	5	100%	전라감사 등
진신장의	59	56	95%	장성부사 등
유림장의	90	4	4%	전현감 등
유림색장	114	2	2%	감찰(監察), 박사(博士)
직월	1	0	0%	-
계	276	74	-	

가지고 있었다. 해당 지역의 수령을 서원의 장의로 선임하여 서원과 관련한 대소사에 관여하도록 한 사례는 돈암서원(遯巖書院), 노강서원(魯岡書院) 등 기호지역 대표 서원들에서도 확인되는 경향인데, 대체로 이는 수령의 서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36]

앞서 살펴본 내용들에 따라 실질적으로 필암서원의 사무를 주관하는 직책은 유림장의와 유림색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지역 내 유림 중에 원임을 선발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역할을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직책도 장의-색장 간의 위계가 분명히 존재했다.[37] 필암서원 「舊院規」에서 유림색장은 서원 부근에 거주하는 인물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임을 선발하는 지역적인 범위가 유림장의보다 좁았다. 이 외에도 유림장의와 유림색장은 그 지위에 따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원임 선발 당시 나이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필암서원 『執綱案』에는 각 원임으로 선발된 인물의 이름 외에도, 본관, 관직 등을 부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생년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다수 확인되기 때문에 원임 선발 당시 나이를 간접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 유림장의 중 생년을 찾을 수 있거나 생년이 기록된 인물은 총 73명으로 선임 당시의 평균나이가 약 51세이다. 그리고 유림색장 중 생년을 찾을 수 있거나 생년이 기록된 인물은 총 70명으로 선임 당시의 평균 나이가 36세이다.[38] 둘을 비교하면 유림색장은 유림장의보다 선임 당시의 평균나이가 약 15세 정도 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필암서원 유림장의와 유림색장은 향촌 내 인물을 선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직책의 명칭이나 선임의 범위,

---

36) 이경동. (2022). 조선시대 논산지역 서원의 운영과 특징 -돈암서원, 노강서원, 죽림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81, 163~196.

37) 장의는 성균관 및 향교의 유생들이 임명되는 재임(齋任) 중 가장 높은 직책으로 재회(齋會)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책이고, 색장은 장의 다음가는 직책이었다.(閔鍾顯, 『太學誌』, 1785)

38) 유림장의와 유림색장의 원임 선발 당시 나이는 해당 기록이 작성된 해에서 해당 인물의 생년을 차감한 값으로 계산했다. 아래 표는 원임 선발당시 연령대를 정리한 것이다.

구분	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유림장의	0	1	7	26	25	14	73
비율	0%	1.4%	9.6%	35.6%	34.2%	19.2%	100%
유림색장	0	12	40	17	1	0	70
비율	0%	17.1%	57.2%	24.3%	1.4%	0%	100%

나이 등에서 보이듯이 유림장의가 유림색장보다 위계가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필암서원 원임으로는 유사 3명과 장재유사 1명을 선발한다. 서원에서 유사는 일반적으로 각종 행정 실무나 원생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도맡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필암서원 원생 중에서 유사가 선발이 된다. 단 필암서원 「舊院規」에서는 유사 3명 중 1명을 서재유생 중에 인품이 근신하고 글과 계산이 여유로운 사람 중 원촌(院村)에 거주하는 이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재유사는 서원 건립 초기부터 존재한 직임은 아니었으며, 강수청(講修廳)이 설치되면서 강학과 관련한 비용을 마련하고 지출을 처리하기 위해 추후 추가된 원임이었다. 장재유사는 기본 임기가 4년이었으며, 재임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드시 필암서원 본손(本孫)에 해당하는 울산김씨 인물 중에서 선발하였다.

제 2 절 원임 구성방식과 경원장제(京院長制)

필암서원 원임은 원장-원이-진신장의-유림장의-유림색장-유사-장재유사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장과 원이, 진신장의가 서원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직책에 해당하고, 유림장의와 유림색장, 유사 등이 서원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책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원장, 원이, 진신장의 세 직책에는 향촌 유림을 선임하지 않고 다른 요건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역 내 인물과 지역 외 인물로 구분되는 이원적인 원임구성은 필암서원에서 확인되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그렇다면 필암서원 원장, 원이, 진신장의는 어떤 기준에 따라 선발되었으며,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 이는 각 직책에 선임된 인물들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2-2〉 필암서원 원장 명단[39)]

	원장	원장 재임 년도	본관	주요 관직	품관
1	宋浚吉	1670(현종11)~1672(현종13)	恩津	이조판서	정2품
2	俞拓基	1752(영조28)~1767(영조43)	杞溪	우의정	정1품
3	金元行	1771(영조47)~1772(영조48)	安東	성균관 좨주	정3품
4	金履安	1786(정조10)~1787(정조11)	安東	성균관 좨주	정3품
5	金鍾秀	1789(정조13)~1799(정조23)	淸風	우의정	정1품
6	沈煥之	1802(순조2)	靑松	영의정	정1품
7	洪直弼	1845(헌종11)~1852(철종3)	南陽	형조판서	정2품

〈표2-2〉는 필암서원 「院長先生案」과 『執綱案』에 기록된 원장들 중 17~19세기에 원장을 역임했던 인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17~19세기 동안 필암서원 원장으로 기록된 인물은 총 7명이 등장한다. 각 원장들의 재임기간을 보았을 때 불규칙적으로 원장이 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17세기에는 송준길 1명만 원장으로 재임하였고, 18세기에는 유척기, 김원행, 김이안, 김종수 등 4명, 19세기에는 심환지, 홍직필 등 2명만이 필암서원 원장으로 재임하였음이 확인된다. 원장 임기도 각자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인다. 심환지의 경우 원장으로 선임된 1802년에만 원장 직책을 수행했으며, 유척기는 원장으로 선임된 1752년부터 1767년까지 약 15년간 원장 직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서는 특정한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인물이 없을 경우 원장을 선임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필암서원 원장은 별도로 규정된 임기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필암서원 「舊院規」에서는 원장 임기에 제한이 없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필암서원 원장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특별히 문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사망 시까지 필암서원 원장으로 『執綱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실제로 필암서원 원장 7명 중 6명은 원장 재임 마지막 해가 졸년과 동일하게

39) 『筆巖書院誌』, 卷之四, 「院長先生案」; 『筆巖書院誌』, 卷之四, 「執綱案」;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1659) 6월 29일 무오; 『영조실록』 권50, 영조 15년(1739) 8월 30일 갑진; 『영조실록』 권119, 영조 48년(1772) 12월 30일 경인; 『정조실록』 권28, 정조 13년(1789) 9월 27일 경술; 『정조실록』 권32, 정조 15년(1791) 5월 27일 신축; 『순조실록』 권4, 순조 2년(1802) 10월 18일 병진; 『철종실록』 권4, 철종 3년(1852) 7월 5일 계축; 『대전통편』, 「吏典」, 1785; 이현종, 『동양연표』, 탐구당, 2014.

나타나고 있다. 이중 김이안만 졸년 이전에 다른 원장이 임명되었는데 이 시기는 필암서원 및 장성지역 유생들이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문묘 종사 활동을 전개하던 시기로,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현직 우의정에 재직 중이었던 김종수를 필암서원 원장으로 초빙하면서 원장의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舊院規」에서 원장은 위고덕존자(位高德尊者)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장 선임에 특정한 기준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표2-2〉를 통해서는 이들이 크게 2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모든 원장이 정3품 이상 현직 관직을 역임했던 고위관직자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조선시대 최고 고위 관직에 해당하는 영의정부터 정3품 성균관 좨주까지 관직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모두 정3품 당상관 이상 직책에 역임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를 통해 필암서원에서 규정하는 원장 선발 요건 중에 '위고(位高)'가 고위관직을 역임했거나 역임하는 인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둘째는 원장 7명이 모두 성리학적 학맥(學脈)으로 이어진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필암서원 최초의 원장이었던 송준길은 율곡 이이(李珥), 사계 김장생(金長生)의 문인(門人)으로 송시열(宋時烈)과 함께 당대 서인-노론을 대표하는 입지를 가진 인물이었다. 다음으로 원장에 선임된 유척기는 송시열, 송준길과 함께 중앙에서 활동했던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인 김창집(金昌集)의 문인(門人)이었다.[40] 그 다음으로 원장에 선임되었던 김원행과 김이안은 부자(父子) 관계로 각각 김창집의 손자(孫子), 증손(曾孫)에 해당하며, 그의 학맥을 이었다. 또한 김종수와 심환지는 정조시기 노론 벽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으며, 송시열, 권상하(權尙夏) 등으로부터 학맥이 이어지는 인물들이었다.[41] 마지막으로 홍직필은 김원행의 제자인 박윤원(朴胤源)의 문인으로 김원행과 학맥으로 연결된 인물이었다.[42] 즉, 필암서원의 원장으로 재임한 인물들은 이

40) 『知守齋集』 권13, 「행장」, 1878.
41) 최성환. (2004). 영조대 후반의 탕평정국과 노론 청론의 분화. 『역사와현실』, 54, 45~73; (2019). 심환지의 정치 생애와 벽파 의리. 『대동문화연구』, 105, 7~38; 박학래. (2025). 호론 학맥의 전개 양상 [상] -호론의 형성과 18세기 후반까지의 학맥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61, 63~95.
42) 『鼓山文集』 권16, 「梅山洪先生行狀」, 1883.

이부터 이어지는 공통된 학맥을 가지는 동시에 해당 시기별로 서인-노론계를 대표한다는 특징이 있다.[43] 실제로 필암서원은 상소문 및 통문을 작성하여 중앙이나 향촌사회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였는데, 대체로 서인-노론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44] 이를 통해 필암서원 「舊院規」에서 규정하는 원장 선발 요건 중에 '덕존(德尊)'이 동일한 학맥을 공유하는 인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2-3〉 필암서원 원이 명단[45]

	원이	원이 선임 년도	본관	관직
1	金達淳	1800(정조24)~1801(순조즉위)	安東	전라감사
2	趙徹永	1845(헌종11)	豊壤	광주목사
3	金翊鎭	1850(철종1)~1852(철종3)	安東	本觀察
4	李憲稙	1888(고종25)	韓山	전라감사
5	金奎弘	1892(고종29)	淸風	전라감사

〈표2-3〉은 『執綱案』에 기록된 인물 중 17~19세기에 원이 직책을 역임했던 인물들만 정리한 것이다. 필암서원 원이로 임명된 인물은 총 5명이 확인되며, 주목할 만한 것은 5명 중 4명이 현직 전라감사 또는 광주목사를 수행하는 동안 필암서원 원이를 역임했다는 점이다. 나머지 1명인 김익진도 해당 시기 관직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필암서원 『執綱案』에서 '本觀察'이라 표기하고 있어 전라감사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보았을 때 필암서원에서 규정하는 원이 선발 요건 중 본도(本道)내의 위고덕존(位高德尊)한 인물을 선발한다는 것은 현직 전라감사 이거나 광주목사인 인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필암서원 「舊院規」에서 원이 임기에 제한이 없음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이의 재임기간이 1~2년 정도로 짧게 확인되는 것은 현직 관직을 수행하는 기간 중에 필암서원 원이를 역임했

43) 이경동. (2024). 앞의 논문. 『대동한문학』, 79, 79-120.
44) 윤희면. (2001). 앞의 논문, 『역사학연구』, 17, 59-103
45) 『筆巖書院誌』, 卷之四, 「執綱案」; 『淸選考』, 1906; 『정조실록』 권54, 정조 24년(1800) 윤 4월 6일 무오; 『승정원일기』, 헌종 8년(1842) 3월 28일 정축; 『고종실록』 권24, 고종 24년(1887) 3월 3일 신묘; 『고종실록』 권26, 고종 26년(1889) 4월 20일 을미.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리하면 필암서원의 원장과 원이 직책에는 고위관직을 역임했거나 중앙관료를 수행하는 인물들이 선임되었다. 이들 외에 서원의 대표 직책에 해당하는 진신장의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보았듯 전체 59명 중 56명이 장성 또는 인근지역에서 수령직을 수행하던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즉, 필암서원은 원장-원이-진신장의 직책에 중앙관료나 지방관을 임명하고, 유림장의-유림색장-유사 직책에는 향촌 유림을 선임하는 이원적인 원임 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원장직에 중앙관직자를 임명해 경원장을 두고, 그 임기를 제한하지 않으며, 원임을 관료와 지역 유림으로 구분하는 이원적인 구성 방식을 경원장제(京院長制) 또는 경유사제(京有司制)라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원장제의 시행이 기호·호남 지역 서원들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당파적 시각에 따라 서인계 서원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로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원임 구성 방식은 필암서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호남에 위치한 남강서원(南康書院), 옥천서원(玉川書院) 등과 기호 지역에 위치한 돈암서원(遯巖書院), 노강서원(魯岡書院), 도봉서원(道峯書院) 등 기호·호남지역에 위치한 다수 서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46]

이들 서원이 경원장제를 통해 원임을 구성했던 방식을 통해서는 조선후기 서원들이 중앙과의 연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필암서원에서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장성 또는 인근지역 수령 직책을 수행하는 인물을 진신장의로 선임하면서 수령과 서원 간의 연결점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동시에 특정 기간에는 고위관직자를 원장 또는 원이로 임명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서원 운영에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실제로 필암서원은 1670년(현종11)~1672년(현종13) 서원 이건을 진행하던 당시 이조판서를 역임했던 송준길을 원장으로 추대했고, 송준길은 장성 부사로 재임했던 김세정, 송시도에게 필암서원 이건에 도움을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당시 영의정을 역임하던 김수항에게 편지를 보내 상량문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47] 김인후의 문묘종사를 준비하던 18세기 말에는 김이안, 김종수 등을 원장으로 추대해 김인후의 문묘종사를 성사 시켰던 점도

46) 이수환. (2001). 『앞의 책』. 서울: 일조각; 윤희면. (2004). 『앞의 책』. 서울: 집문당.
47) 『筆巖書院誌』 卷之三, 「同春堂宋先生與文谷相公書」, 1671년(현종12)

서원 운영에 원장의 도움을 받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필암서원 각 원임의 역할과 구성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원을 대표하면서 서원 운영에 재정적·행정적 도움을 주는 직책으로 원장-원이-진신장의가 있었으며, 향촌에서 서원 사무를 주관하는 존재로는 유림장의-유림색장-유사 등이 있었다. 또한 일부 원임을 지역 인사가 아닌 중앙 관료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이원적인 원임 구성을 통해 지방 서원이 중앙 관료 인물들과 지속적으로 연결점을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암서원을 비롯한 기호·호남지역 서원에서 이러한 구성방식이 나타나는 점은 중앙에서 서원을 당파의 소굴이자 폐단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규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기존의 인식과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다.

HANSUNG UNIVERSITY

제 3 장 원임 성관의 구성과 주도세력

제 1 절 성관 구성의 시기별 추이

필암서원 원임은 원장-원이-진신장의-유림장의-유림색장-유사 체계로 구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사회에서 활동하는 양반들이 선임되는 직책은 유림장의와 유림색장 및 유사였다. 이들은 교육, 제향, 행정, 재정업무 등 서원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주관하였으며, 향촌사회 또는 서원에서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원임으로 선발된 인물들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원임으로 임명된 개별 인물 분석을 통해서는 서원 운영에 참여하는 양반들의 구성과 그 변동 추이를 살펴보기에 용이하다. 또한 이를 시기별로 분석했을 때 조선후기 지역 양반들이 서원에 출입하는 것이 지속되거나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필암서원 『執綱案』의 기록을 토대로 유림장의와 유림색장 직책에 임명된 개별 인물들을 시기별·가계별로 분석하여 향촌 지역에서 유력한 양반들이 서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필암서원 『執綱案』에서 17~19세기 동안 유림장의로 기록된 인물은 중복을 포함하여 총 106명이 등장하고, 유림색장으로 기록된 인물은 중복을 포함하여 총 129명이 등장한다. 또한 특정 시기에만 선발된 것으로 보이는 직월(直月) 직책으로 기록된 인물이 중복을 포함하여 총 2명 등장한다. 이를 다시 세기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3-1〉 시기별 필암서원 원임(유림장의, 유림색장, 직월) 인원 수[48]

구분	유림장의 (儒林掌議)	유림색장 (儒林色掌)	직월(直月)	계
17C	2(1)	4(2)	0(0)	6(3)
18C	48(46)	65(65)	0(0)	113(111)
19C	56(43)	60(47)	2(1)	118(91)
계	106(90)	129(114)	2(1)	237(205)

※ 괄호 안에는 중복을 제외한 수를 표기

〈표3-1〉를 보면 17세기 필암서원 원임 수가 매우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제 17세기에 원임 수가 적었던 것이 아니라 1670년과 1672년 두 개 식년만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필암서원 『執綱案』이 본격적으로 작성·관리 되기 시작한 것은 1742년(영조18)부터로 1742년 이전에는 1670년, 1672년, 1708년, 1717년 4개 연도에 기록만 남아있어 확인 되는 수가 매우 적다. 또한 본 자료는 매년 정기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원임의 교체가 있을 때마다 불규칙적으로 작성되었다. 다만 1742년부터 1900년까지 약 160여년 동안은 선발된 원임에 대한 기록이 꾸준히 이루어져 어떤 인물들이 필암서원 원임으로 임명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18세기에는 유림장의 48명과 유림색장 65명, 총 113명의 원임이 확인된다. 『執綱案』이 주기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1742년부터로 1708년, 1717년 원임으로 기록된 6명을 제외하면 약 60여년 동안 107명의 원임이 선발되었다.

19세기 동안에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執綱案』이 작성되었으며 유림장의 56명과 유림색장 60명, 직월 2명, 총 118명의 원임이 확인된다. 19세기에는 18세기보다 유림장의가 증가하고 유림색장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48) 아래 표는 필암서원 「執綱案」을 중심으로 원임 선발이 이루어졌던 식년 수를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시기 구분은 초반 0~33년, 중반 34~66년, 후반 67~99년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17C 후	18C 초	18C 중	18C 후	19C 초	19C 중	19C 후
원임 선발 기록 수	2회	2회	15회	16회	7회	14회	14회

김인후의 문묘종사를 준비했던 1774년부터 기존에 1명씩 선발하던 유림장의를 2~3명씩 선발했기 때문이었다.

17세기 중에서 1670년과 1672년에만 원임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은 그 기간 동안 필암서원 이건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필암서원은 침수로 피해를 입어 건물들이 손상되었는데 이에 따라 지역 양반들이 서원의 위치를 옮길 것을 의논하였고, 지금의 위치로 이건하게 되었다. 서원 이건은 많은 물력과 인력이 소모되는 사업으로 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했기에 이를 주관하는 원임의 역량이 중요하게 여겨졌다.[49] 이러한 이유로 이 시기 필암서원 원임은 관의 협조를 구하고, 지역 사람들을 독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원임으로 선발하였다.

실제로 유림장의로 선발된 이실지(李實之)는 조선 초기부터 장성 지역에 거주지를 형성했던 광산이씨 이시지(李時止)의 후손이자 필암서원 배향자인 김인후의 외현손으로 지역 양반들을 규합할 수 있을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송시열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송준길과 김수항 등에게 강론을 듣기도 하면서 중앙의 유력 양반들과도 연결점으로 가지고 있었다.[50] 이러한 이유로 필암서원은 당시 송준길을 원장으로 추대하여 이건에 자문을 받고, 장성부사였던 김세정, 송시도를 진신장의로 추대해 인적·물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51] 유림색장으로 임명되었던 박승화(朴升華) 역시 필암서원이 위치해있던 황룡면에 집성촌을 형성한 밀양박씨 인물이자, 명종시기 한성판윤·호조참판 등을 역임했던 박수량(朴守良)의 후손이었다.[52]

이처럼 필암서원 유림장의, 유림색장으로 임명된 인물들은 일찍이 장성 또는 호남지역에 거주했던 양반가문 출신 인물로 지역 내에서 영향력이 있으면서도 서원의 일을 주관·집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물들이 선발되었다. 그

---

49) 17~18세기 서원 건립을 주도하였던 이들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나 지방관이 주도적으로 건립에 참여한 관설(官設) 또는 반관반민설(半官半民設)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배향인물의 문인이나 후손 등 향인(鄕人)들이 주도적으로 건립에 참여한 서설(私設)이 있었다. 대부분의 서원은 사설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에도 향인들이 서로 힘을 합해 건립하거나 일부 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 건립의 과정에서는 향인들과 지방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상과 입지를 가진 인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정만조. (1997). 『앞의 책』, 서울: 집문당.)

50) 『南溪集』, 附錄, 「行狀」, 1805년(순조5).

51) 『筆巖書院誌』, 卷之三, 「同春宋先生李南溪實之等書」, 1671년(현종12), 九月 二十九日.

52) 『장성읍지』, 「名基」, 1927.

렇기 때문에 시기별로 어떤 가문의 인물들이 필암서원 원임에 선발되었는지 확인해 본다면 지역 내에 영향력이 강했던 가문이 어디였는지와 그 변동추이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중 유림장의부터 시기별 성관 분포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3-2〉 유림장의 시기별 성관(姓貫)분포[53]

성관	17C 후	18C 초	18C 중	18C 후	19C 초	19C 중	19C 후	계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비율
幸州奇氏	-	1	1	3	2	3	4(3)	14(13)	13%
蔚山金氏	-	-	4	5(4)	-	3(1)	-	12(9)	11.1%
光山金氏	-	-	5	2	2	1	-	10	9.3%
密陽朴氏	-	-	1	1	-	-	5(4)	7(6)	6.5%
黃州邊氏	-	-	-	3	1	1	-	5	4.6%
長興高氏	-	-	-	-	-	1	4(2)	5(3)	4.6%
鎭川宋氏	-	-	1	1(0)	-	1	2(1)	5(3)	4.6%
延日鄭氏	-	-	-	2	1	-	2(1)	5(4)	4.6%
其他姓氏	2(1)	-	1	13	7	6	3(2)	32(30)	31.5%
본관미상	-	1	2	1	-	4(1)	3(2)	11(7)	10.2%
계	2(1)	2	15	31(29)	13	20(15)	23(15)	106(90)	100%

※ 괄호 안에는 중복을 제외한 수를 표기.

※ 전체 28개 성관이 등장하며, 성관별 인원수가 최대 14명부터 최소 1명까지 확인됨.

※ 표의 8개 성관은 성관별 인원 수가 최소 5회 이상 등장한 성관을 기준으로 작성.

※ 기타성씨(其他姓氏)는 전 식년에서 1~3회 등장한 20개 성관을 종합한 수치.

※ 시기 구분은 초반 0~33년, 중반 34~66년, 후반 67~99년으로 구분.

53) 필암서원 원임으로 기록된 인물들의 성씨와 본관은 필암서원 「執綱案」에 기록된 이름과 생년, 자, 본관을 토대로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만가보(萬家譜)』, 『행주기씨세보(幸州奇氏世譜)』, 『장성읍지』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필암서원 유림장의로 확인되는 인물들 전체의 성관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성관	행주기씨	울산김씨	광산김씨	밀양박씨	황주변씨	장흥고씨	진천송씨	연일정씨
인원수	14	12	10	7	5	5	5	5
%	13	11.1	9.3	6.5	4.6	4.6	4.6	4.6
성관	고령신씨	나주오씨	서산유씨	전주이씨	문화유씨	광산이씨	순천박씨	연안이씨
인원수	3	3	3	3	2	2	2	2
%	2.8	2.8	2.8	2.8	1.9	1.9	1.9	1.9
성관	제주양씨	거창신씨	나주임씨	반남박씨	신평송씨	안동권씨	죽산안씨	영천이씨
인원수	1	1	1	1	1	1	1	1
%	0.9	0.9	0.9	0.9	0.9	0.9	0.9	0.9
성관	청주곽씨	풍양조씨	풍천임씨	해주최씨	본관미상	계		
인원수	1	1	1	1	11	106		
%	0.9	0.9	0.9	0.9	10.2	100		

〈표3-2〉를 보았을 때 우선 시기별로 유림장의 인원수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반은 앞서 살펴보았듯 각각 2개 식년의 원임만을 기록하고 있어 유림장의 또한 2명씩만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19세기 초반에도 총 7개 식년의 원임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시기에는 14~16개 식년의 원임을 기록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19세기 초반에 원임 수가 적게 나타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19세기 초반에 원임 임명이 7개 식년만 확인되는 것은 당시 장성을 비롯한 호남지역의 흉년과 관계가 있다.

> 국가가 쓰는 재부(財賦)의 태반을 호남에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그 호남이 호남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까닭은 연해(沿海)의 여러 고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기사년과 경오년 이후로는 피폐하여 잔패(殘敗)되었습니다. 이들 연해의 고을들은 7년 사이에 거의 전부 해마다 분등(分等)이 가장 우심한 곳에 들게 되었으니, 이처럼 흉년이 특히 심한데, 사망한 자가 또한 어찌 더욱 많지 않겠습니까? … 산골 읍인 운봉(雲峰)이나 야읍(野邑)인 장성(長城)·능주(綾州)도 호구와 인정을 대조해 보면 그 반수도 감당할 수 없는 곳들입니다. …54)

위는 1815년(순조15) 전라감사 김계온(金啓溫)이 상소한 내용 중 일부로, 기사에서는 기사년(1809년)과 경오년(1810년) 연이은 흉년으로 국가 재부(財賦)의 태반을 책임지고 있는 호남 연해 지역 상황이 어려우며, 인근에 위치한 산골 지역들도 호구와 인정을 대조해 보면 책정된 부세(賦稅)의 반수도 감당할 수 없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당시 호남지역이 흉년으로 사망자가 많았으며, 부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때문에 필암서원에 출입하던 양반들도 서원의 일 보다는 흉년을 해결하는 일에 보다 집중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필암서원 집강안이 작성된 시기도 1807년의 다음 식년에 1816년을 기록하고 있어 약 9년 동안 필암서원 원임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중반과 후반의 인원 수를 비교했을 때에는 18세기 후반에 유림장

54) 『순조실록』 권18, 순조15년(1815) 10월 12일 계해.

의 인원 수가 2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1명씩 선임하던 유림장의가 1774년부터 2~3명을 선임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었다. 18세기 중반에는 총 15개 식년이 확인되는데 유림장의 또한 15명으로 식년마다 유림장의가 1명씩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774년부터는 식년별로 유림장의가 2~3명씩 임명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18세기 후반에는 총 16개 식년이 확인되는데 유림장의가 1명씩 임명된 것이 4개 식년이었으며, 2명씩 임명된 것이 9개 식년, 3명씩 임명된 것이 3개 식년으로 확인된다.

1774년부터 유림장의 임명 인원 수가 증가했던 것은 필암서원 및 장성지역 유림들이 추진했던 김인후 문묘종사 활동과 관련이 있다. 필암서원에서 김인후 문묘종사를 위한 활동이 처음 확인되는 것이 1771년으로 원장직에 중앙관료 요직을 역임했었던 김원행(金元行)을 추대하기도 했으며, 같은 해에 호남지역 유생 양학연(梁學淵) 등이 상소하여 김인후의 문묘 종향을 청하기도 하였다.[55]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직후에 『執綱案』이 작성된 시기가 1774년이었다. 실제로 1786년에는 조진규(趙鎭奎), 권태응(權太應), 변상두(邊相斗) 3명이 유림장의로 임명되었는데 『執綱案』에서는 조진규와 권태응 성명을 기록한 하단에 '居京'이라 별도로 표기하고 있어 이들이 한양에 거주하면서 김인후의 문묘 종사에 도움을 준 인물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김인후의 문묘종사는 1796년(정조20) 정조의 윤허를 받아 결정되었는데, 1796년 이후 식년에서는 유림장의를 3명까지 선임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가계별 인원수와 그 변화에 주목할 수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유림장의를 배출한 성관으로 '행주기씨'와 '울산김씨', '광산김씨'가 확인된다. 이들 가문은 각각 행주기씨 14회, 울산김씨 12회, 광산김씨 10회로 중복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인물을 배출하였다. 유림장의를 5명 이상 배출한 가문으로는 '밀양박씨', '황주변씨', '장흥고씨', '진천송씨', '연일정씨' 5개 가문이 확인된다. 이중에서는 밀양박씨가 중복을 포함하여 7명으로 가장 많은 인물을 배출했고, 다른 4개 성관이 각각 5명으로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시기별로 보았을 때 꾸준하게 유림장의를 배출했던 가문으로는 행주

55) 一百二十八年(英宗大王四十七年)辛卯 全羅道儒生梁學淵等。疏請從享先生于文廟。未徹。(『河西全集附錄』 卷之四, 「年譜」, 1802.)

기씨가 확인된다. 『執綱案』이 주기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던 17세기 후반 ~ 18세기 초반에도 행주기씨 인물 중 유림장의가 등장하며, 18세기 후반에는 유림장의 중 약 10%, 19세기 동안에는 해당 시기 유림장의 중 15%이상을 행주기씨 가문에서 배출하였다.

다른 성관들은 대부분 주기적으로 유림장의를 배출하지 못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울산김씨는 18세기 후반까지는 유림장의를 9명 배출했으나 19세기 동안에는 3명을 배출하는데 그쳐 그 수가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광산김씨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유림장의를 배출하기는 했으나 그 수가 불규칙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밀양박씨는 유림장의를 역임했던 인물 7명 중 5명이 19세기 후반에 유림장의를 역임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연일정씨와 황주변씨는 18세기 후반부터 유림장의를 배출하기 시작했으며, 장흥고씨는 19세기 중반 이후에나 유림장의를 배출했던 성관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서 유림장의로 선출된 인물들에 대한 몇가지 정보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유림장의를 주로 배출했던 성관의 존재를 알 수 있다. 필암서원 유림장의를 1명 이상 배출한 성관은 본관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28개가 확인되는데 행주기씨, 울산김씨, 광산김씨 세 성관이 전체 유림장의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유림장의를 주로 배출했던 성관에 해당한다.

둘째로는 주도 성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정 가문이 독점하는 형태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유림장의의 성관별 인원 비율을 보면 행주기씨와 울산김씨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관이 10%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총 28개 성관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문에서 필암서원 유림장의를 1회 이상 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56] 이러한 특징은 유림색장을 보았을 때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56) 기존 연구에서는 서원 배향자나 활동 인물의 2/3 이상이 단일 성씨 및 그 혼인관계 속에서 배출되고, 입향조(入鄕祖)를 정점으로 한 친족 조직을 형성하고, 족적(族的)인 지위 확보를 위해 향촌활동을 전개하는 서원을 문중서원 또는 서원의 문중화 현상이라 설명하였다.(이해준. (2008). 『앞의 책』. 서울: 경인문화사.)

〈표3-3〉 필암서원 유림색장 성관(姓貫)분포[57]

본적	17C 후	18C 초	18C 중	18C 후	19C 초	19C 중	19C 후	계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비율
幸州奇氏	-	-	4	4	1	4(2)	4(2)	17(13)	13.2%
蔚山金氏	-	1	4	3	2	2	2(1)	14(13)	10.8%
密陽朴氏	2(1)	1	-	1	-	2	3(2)	9(7)	7%
黃州邊氏	-	1	5	1	-	2	-	9	7%
長興高氏	-	-	-	2	3	1	2(1)	8(7)	6.2%
鎭川宋氏	-	-	3	1	1	1	2(1)	8(7)	6.2%
高靈申氏	-	1	3	2	1	-	-	7	5.4%
延日鄭氏	-	-	-	2	1	-	4(3)	7(6)	5.4%
光山金氏	-	-	4	1	-	-	1	6	4.6%
文化柳氏	-	-	3	2	-	-	1	6	4.6%
其他姓氏	2(1)	-	2	6	2	4(2)	7(5)	23(18)	18%
본관미상	-	-	3	5	1	5	1	15	11.6%
계	4(2)	4	31	30	12	21(17)	27(18)	129(114)	100%

※ 괄호 안에는 중복을 제외한 수를 표기
※ 전체 23개 성관이 등장하며, 성관별 인원수가 최대 17명부터 최소 1명까지 확인됨.
※ 표의 10개 성관은 성관별 인원 수가 최소 6회 이상 등장한 성관을 기준으로 작성.
※ 유림색장 기타성씨(其他姓氏)는 전 식년에서 5회 이하로 등장한 13개 성관을 종합한 수치.
※ 시기 구분은 초반 0~33년, 중반 34~66년, 후반 67~99년으로 구분.

〈표3-3〉은 필암서원 유림색장으로 임명된 인물들을 시기별·성관별로 구분해 정리한 표이다. 우선 시기별 유림색장 인원 수를 살펴 보았을 때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 19세기 초반에서 그 수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앞서 유림장의 보았을 때 서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필암서원 유림색장은 전 시기 동안 식년별로 2명씩 임명되었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

57) 필암서원 원임으로 기록된 인물들의 성씨와 본관은 필암서원 「執綱案」에 기록된 이름과 생년, 자, 본관을 토대로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만가보(萬家譜)』, 『행주기씨세보(幸州奇氏世譜)』, 『장성읍지』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필암서원 유림색장으로 확인되는 인물들 전체의 성관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성관	행주기씨	울산김씨	황주변씨	밀양박씨	장흥고씨	진천송씨	연일정씨	고령신씨
인원수	17	14	9	9	8	8	7	7
%	13.2	10.8	7	7	6.2	6.2	5.4	5.4
성관	광산김씨	문화유씨	진주정씨	수원백씨	순천박씨	의성김씨	함평이씨	광산이씨
인원수	6	6	5	4	2	2	2	1
%	4.6	4.6	3.9	3.1	1.5	1.5	1.5	0.8
성관	나주나씨	나주오씨	전주이씨	제주양씨	평해황씨	풍천노씨	한양조씨	본관미상
인원수	1	1	1	1	1	1	1	15
%	0.8	0.8	0.8	0.8	0.8	0.8	0.8	11.6

나 19세기 중반에는 총 21명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 적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860년대에 유림색장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60년대에는 1865년(고종2), 1866년(고종3), 1868년(고종5) 총 3회 작성되었는데, 이 시기 동안 유림색장은 전혀 선임되지 않았다. 이는 고종 즉위 직후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서원 조사 및 철폐가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가계별 인원수와 그 변화를 앞서 살펴보았던 유림장의와 비교해 보면 우선 광산김씨가 유림색장을 배출한 것이 총 6명으로 유림장의를 배출한 것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높지 않게 나타난다. 그리고 '고령신씨'와 '문화유씨'는 유림장의를 각각 3명, 2명 배출하는데 그쳤던 것에 반해 유림색장을 7명, 6명 배출하여 그 수치가 2배 정도 차이난다.

시기별로 보았을 때 행주기씨와 더불어 울산김씨가 전 시기에 걸쳐 비교적 꾸준하게 유림색장을 배출한 가문이었음이 확인된다. 특히 울산김씨는 19세기에 유림장의를 배출하는 수가 감소하였던 반면에 유림색장은 시기별로 2명 이상을 배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진천송씨도 유림장의는 꾸준하게 배출하지 못했던 반면, 유림색장은 18세기 중반부터 시기별로 1명 이상을 꾸준하게 배출하였다. 이 외에 밀양박씨, 황주변씨, 연일정씨, 장흥고씨는 특정 시기에만 원임을 배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중에서 장흥고씨와 연일정씨는 18세기 후반부터 필암서원 원임을 배출하기 시작한 성관에 해당한다. 이를 보았을 때 특정 성관이 필암서원 원임을 주로 배출했던 점과 대부분의 성관에서 불규칙적으로 원임을 배출했던 점, 특정 가문이 원임직을 독점하는 형태는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은 유림장의를 살펴보았을 때와 동일하게 확인된다.

지금까지 조선후기 필암서원 유림장의와 유림색장의 시기별 인원수 및 성관 분포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기별 인원수 분석을 통해서는 18세기 후반 김인후 문묘종사 활동으로 필암서원 유림장의 구성에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기별 성관 분포를 통해서는 행주기씨, 울산김씨 등 주도적으로 원임을 배출하는 가계가 지속되면서도 이들 가계에서 원임 직책을 독점하지 않고 다양한 가계에서 서원 운영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것으로는 특정 성관이 원임 배출을 지속하였던 이유나 어떠한 이유

로 성관의 유입 또는 탈락이 발생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임에 선출되었던 개인과 해당 가문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서원 운영층의 지속과 변화

서원 운영에 참여했던 각 가문과 해당 가문의 서원 출입 지속 또는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유림장의와 유림색장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비교적 전 시기에 원임선발이 이루어졌던 행주기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행주기씨는 필암서원 인근에 집성촌을 형성한 장성지역 대표적인 양반 가문에 해당한다. 이들이 장성지역에 정착했던 것은 16세기 중엽으로 조광조의 제자였던 기준(奇遵)이 기묘사화에 휘말리게 되면서 그 형제들이 각각 지방으로 낙향하게 되었는데 동생 기원(奇遠)이 장성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집성촌이 형성되었다.[58] 또한 기원의 후손 중 기효간(奇孝諫)은 필암서원의 배향자인 김인후의 제자이자 필암서원 건립에 적극 참여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건립 초기부터 서원 운영에 주도적으로 활약했던 가문에 해당한다.[59]

실제로 필암서원 원임으로 선발된 행주기씨 인물들은 다수가 기효간의 후손 중에 선발되었다. 필암서원 원임에 행주기씨 인물은 총 31회 선발되었는데 그 중 70%에 해당하는 22회가 기효간의 후손으로 드러난다. 또한 이들은 한 집안에서 원임을 여럿 배출하거나 대를 이어서 원임을 배출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기식(奇湜)의 아들이었던 기명상(奇命相)과 기일상(奇日相)은 각각 1757년과 1768년에 필암서원 유림색장으로 선발되었고, 그중 기일상의 아들 기태직(奇泰稷)이 1830년에 유림장의에 임명된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행주기씨가 필암서원 본손에 해당하는 울산김씨 보다도 많은 수의 원임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기효간 가문 외에 행주기씨 계파의 유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행주기씨가 원임으로 선발된 31회 중 약 25%인 8회는 기대승(奇大升)의 후손 중에서 임명되었는데, 1774년 기학순(奇學淳)이 유림색장

58) 행주 기씨 세거지는 오늘날의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에는 밀양 박씨 세거지도 위치해 있다.(『장성읍지』, 「명기(名基)」, 1927)
59) 『筆巖書院誌』 卷之二, 「梁鼓巖奇錦江卞壺巖三先生請配疏」, 1697.

으로 선발되면서 처음 등장한다. 기대승 가문의 행주기씨로 나타나는 8명은 전부 기정후(奇挺後)의 후손에 해당한다.

이처럼 행주기씨는 필암서원 건립에 공이 있었던 기효간 가문과 18세 후반부터 유입된 기대승 가문을 중심으로 필암서원 원임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면서 서원 운영 주도세력으로서 입지를 구축하였다. 이는 필암서원 「執綱案」이 본격적으로 작성되었던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를 33년 단위로 구분했을 때 모든 시기에서 1명 이상 원임을 배출했던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행주기씨는 향촌 인물로 선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원임직인 유림장의를 시기별로 꾸준히 배출했다. 이들이 최초로 유림장의를 배출했던 1717년부터 마지막으로 배출한 1896년까지 몇 년마다 유림장의를 배출했는지 평균 값을 구하면 약14년으로 타 가문과 비교했을 때 매우 안정적으로 원임을 배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주기씨는 필암서원 운영에 있어서 주도세력으로 조선후기 동안 그 위상을 유지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필암서원에서 전체 2번째로 원임을 많이 배출한 성관은 울산김씨였다. 울산김씨 또한 장성 필암서원 인근 지역에 집성촌을 형성했던 대표적인 가문으로 배향자인 김인후의 가문이기도 했다. 울산김씨는 여말 선초 조선 개국공신으로 흥려군(興麗君)에 책봉되었던 김온(金穩)이 낙향 후 장성 맥동 지역(지금의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에 거주지를 정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했다.[60] 그 후손 중 한 사람인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는 인종과의 절의를 지킨 충절(忠節)로 많은 이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학식이 뛰어나 이황(李滉), 기대승(奇大升), 양산보(梁山甫) 등과 교류하고 정철(鄭澈), 기효간(奇孝諫), 양자징(梁子澂) 등 수많은 후학들을 지도하여 장성지역의 학맥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김인후의 후손들은 필암서원에서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김형지(金亨祉)는 필암서원 사액 청원 활동을 주관했으며, 김형우(金亨祐)는 1678년 필암서원 강관(講官)으로 활동하면서 후학 양성에 이바지하였다.[61] 이러한 공로 때문에 울산김씨 가문도 서원 운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서 꾸준

60) 『장성읍지』, 「유림(儒林)」, 1927.
61) 『筆巖書院誌』, 「院籍」, 1678.

하게 원임을 배출해냈다.

실제로 필암서원 원임 중 울산김씨 인물이 선발된 것은 26회로 모두 김인후의 후손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 중에는 대를 이어 필암서원 원임을 역임했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1746년 김승조(金承祖)가 유림장의로 선발되어 원임직을 수행했는데 그 아들인 김방걸(金邦杰)은 1761년과 1768년에 유림장의로 선발되었으며, 김방걸의 아들인 김직휴(金直休)도 1781년에 유림장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울산김씨는 행주기씨와 다르게 유림장의 직임에 인물을 꾸준히 배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 시기에 울산김씨가 주도세력으로 참여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림장의 선발 기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유림장의는 도·군간의 인물 중 문행과 신망이 있는 자를 선임했으며, 유림색장보다 생원시·진사시 합격자 비중이 높았고, 선발 당시 연령도 약 15세 정도 차이가 있었다. 또한 유림장의는 필암서원 이건 사례에서 보았듯이 관의 협조를 구하거나 지역 수령과 연결점을 가진 인물을 선발하는 것이 서원 운영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필암서원 유림장의는 장성부를 포함한 전라도 지역 내에서 명망과 연륜이 있으며, 소과(小科) 합격자이거나 관과의 연결점이 있는 인물을 선발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특정 성관이 필암서원 유림장의 직책을 독점하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반증한다. 이는 필암서원 유림장의로 임명된 인물들의 성관이 혼인과 같은 결합조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8개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필암서원은 1775년 강수청(講修廳)이 설립된 이후 본손 유림 중에 장재유사(掌財有司)를 선임할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울산김씨는 매번 필암서원 원임으로 장재유사를 포함해 1명 이상의 인물을 배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필암서원 유림장의를 배출하는 횟수가 감소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강수청이 설립된 이후 19세기에는 울산김씨 인물 중 유림장의에 선발된 인물이 1848년, 1850년, 1852년 3번 임명된 김용휴(金溶休)가 유일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성관은 주기적으로 필암서원 원임을 배출한 성관에

해당한다. 17~19세기 동안 선발된 원임 235명 중 57명이 위 두 성관의 인물로 전체의 약 25% 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특정 시기에만 원임을 집중적으로 배출한 것이 아니라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나는 것은 조선후기 동안 필암서원 운영에 있어 두 성관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두 성관을 보았을 때 행주기씨 가문은 유림장의와 유림색장을 지속적으로 맡았고, 울산김씨는 유림색장을 비롯하여 19세기부터는 장재유사 직임을 전담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이는 두 성관이 서원의 행정적·재정적 사무를 담당하는 원임 선발하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였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는 원임을 꾸준하게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원임을 배출했던 성관으로 광산김씨, 밀양박씨, 황주변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세 성관은 앞서 살펴보았던 행주기씨, 울산김씨와 동일하게 장성지역의 유력 양반 가문이자, 필암서원 인근 지역에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62] 광산김씨는 김숭조(金崇祖), 김기(金紀) 부자가 기묘사화 이후 낙향했을 때 고향이자 김기의 처가가 있었던 장성 황룡면 지역에 자리잡으면서 집성촌이 형성되었다. 또한 이들의 후손 중 김우급(金友伋)은 광해군 시기 인목대비(仁穆大妃) 폐모론에 반대해 낙향한 것으로 지역 양반들에게 높은 절개와 굳은 지조를 인정받기도 했다.[63] 필암서원 원임으로 임명된 광산김씨 인물들도 대부분이 김기의 후손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는 김기의 7대손인 김천덕(金天德)이 1746년 유림색장으로 선발되었던 것과 그 아들 김필태(金必泰)가 1756년 유림색장으로 선발되었던 것 등을 말할 수 있다.

밀양박씨는 조선 초기 박덕명(朴德明)과 그의 아들 박연생(朴衍生)이 태인(泰仁)지역에서 장성 황룡면으로 이주하여 살면서 이후 그 자손들이 장성지역에 세거하게 되었다. 그 후손 중에 경기관찰사, 한성판윤 등의 관직을 역임했던 박수량은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될 정도로 청렴하고 근검하여, 지역 양반들로부터 공적을 인정받기도 했다.[64] 필암서원 원임으로 드러나는 밀양박씨 인물들도 박수량의 후손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1670년과 1672년 유림색장으로 선발되어 필암서원 이건을 주관했던 박승화가 대표적이다.

---

62) 『장성군사』 8권, 「입향조」, 장성군청, 2001. 참조
63) 『추담선생문집』, 附錄, 「行狀」, 1929.
64) 『명종실록』 권16, 명종 9년(1554) 1월 19일 경신.

황주변씨는 장성군 장안리에 집성촌을 형성한 가문으로 고려말 사정공 변정(邊靜)이 정치가 문란해 지는 것을 피해 이 지역에 은거하면서 세거지가 형성되었다. 변정의 4대손인 변이중(邊以中)은 사헌부 감찰, 풍기군수 등을 거쳐 임진왜란 때에는 전라도 소모사로 화차(火車)를 개발하여 행주대첩의 승리에 큰 공을 세웠다. 또한 사직한 후에는 주희의 여씨향약을 모방하여 장성지역에서 향약을 실시함으로써 향촌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했다.[65] 지역 양반들은 위와 같은 변이중의 공로를 인정하였고, 그 후손들이 장성지역 향촌활동에 다수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필암서원 『집강안』에 원임으로 기록된 황주변씨 인물 14명이 모두 변이중의 아버지인 변택(邊澤)의 후손에 해당했으며, 필암서원 『원적』에 기록된 필암서원 원생 총 730명 중 13.5%에 해당하는 99명이 황주변씨 인물이었다는 점 등을 통해 이들이 필암서원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66]

이처럼 세 성관은 뛰어난 인물들을 배출하여 지역민들로부터 양반층으로 인정을 받은 가문에 해당하는 동시에 필암서원 인근에 세거지를 형성한 가문들이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이들은 필암서원을 건립할때에도 참여 비중이 높은 성관에 해당했으며, 필암서원 운영에 있어서도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은 18~19세기 동안 필암서원 원임을 꾸준하게 배출하기 보다는 시기별로 원임을 배출하는 정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67] 그중 밀양박씨는 원임을 배출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19세기 초반에는 0명,

65) 『국역 국조인물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66) 필암서원 『원적』은 1708년, 1717년, 1742년, 1746년 총 4개년도의 필암서원 원생을 기록한 인물자료로 원생의 이름과, 관직, 과거시험 합격 여부 등을 기록하고 있다. 『원적』 기록을 종합했을 때 중복을 제외하고 총 730명 인물이 기록되어 있다.(권기중. (2025). 필암서원. 『2025년 세계유산 한국의서원 학술포럼-한국의 서원 인물자료 현황과 분석-』,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73~300.)

67) 아래 표는 밀양박씨, 광산김씨, 황주변씨 세 성관의 전체 대비 원임 배출 인원수 및 비율을 시기별로 정리한 표이다. 시기 구분은 초반 1~33년, 중반 34~66년, 후반 67~99년으로 구분하였다.

구 분	18C 초반	18C 중반	18C 후반	19C 초반	19C 중반	19C 후반
밀양박씨	1(16.7%)	1(2.2%)	2(3.3%)	0(0%)	2(4.9%)	8(16%)
광산김씨	0(0%)	9(19.5%)	3(4.9%)	2(8%)	1(2.4%)	1(2%)
황주변씨	1(16.7%)	5(10.9%)	4(6.5%)	1(4%)	3(7.3%)	0(0%)
전체 원임수	6(100%)	46(100%)	61(100%)	25(100%)	41(100%)	50(100%)

19세기 후반에는 8명으로 19세기 동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밀양박씨 내 새로운 계파의 유입을 말할 수 있다. 기존에 필암서원 원임으로 선발되었던 밀양박씨 인물들은 대부분이 박연생의 후손들 중에서 임명되었으나, 19세기 후반 필암서원 원임으로 선발된 밀양박씨 인물 8명은 박연생의 후손들 중에 원임이 선발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행주기씨 사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른 밀양박씨 가문의 인물들이 19세기 후반에 장성지역으로 유입되었다면 밀양박씨 원임 배출이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혼인을 통한 유입을 말할 수 있다. 이는 여러 지역에서 드러나는 양반가문 간의 결합 방법으로 지역 양반들간의 결속을 강화하거나, 외부 성관이 지역에 유입되는 대표적인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한다.[68] 19세기에 밀양박씨 성관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도 필암서원 또는 장성지역의 유력한 성관과의 혼인 관계를 통해 지역 내 입지를 전보다 강화한 결과일 수 있다.

위 두 가지는 필암서원 원임 중에 밀양박씨 인물이 증가한 원인으로 제시되었지만 다른 성관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밀양박씨와는 다르게 광산김씨와 황주변씨는 원임으로 배출되는 인물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그 원인 또한 외부성관의 유입이나 혼인으로 인한 유입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두 성관은 18세기 중반에는 전체 원임중 10%이상을 배출하는 성관에 해당했으나 18세기 후반에는 모두 10%를 넘기지 못하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8세기 후반에 필암서원 원임으로 연일정씨와 장흥고씨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연일정씨가 유림장의 또는 유림색장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1774년(영조50) 유림장의로 임명된 정일환(鄭日煥)이다. 그는 장성이 아닌 창평(昌平)에 거주하는 인물이었으나

68) 일부 연구에서는 17세기 지방에 거주하는 양반가문과 그 친족관계를 분석하여, 일향의 범위를 벗어난 연결망을 형성하였음과 부계에 한정되지 않고 처가·외가와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설명했으며, 외가와 처가를 통해 특정 성관이 전국 여러지역에 유입·형성되는 모습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문중을 중심으로 보는 것 외에도 양반의 친족 연결망을 외가·처가 등 넓은 범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백광열. (2017). 조선후기 한 지방양반의 친족연결망 -해남윤씨 윤이후 일족의 사례검토-. 『태동고전연구』, 39, 41-88.)

생원시 합격자였고, 필암서원 배향자 김인후의 제자였던 정철(鄭澈)의 후손이었다.[69] 이후부터 필암서원 원임으로 정철의 후손인 연일정씨 인물들이 선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의 혼인관계에서는 행주기씨 인물들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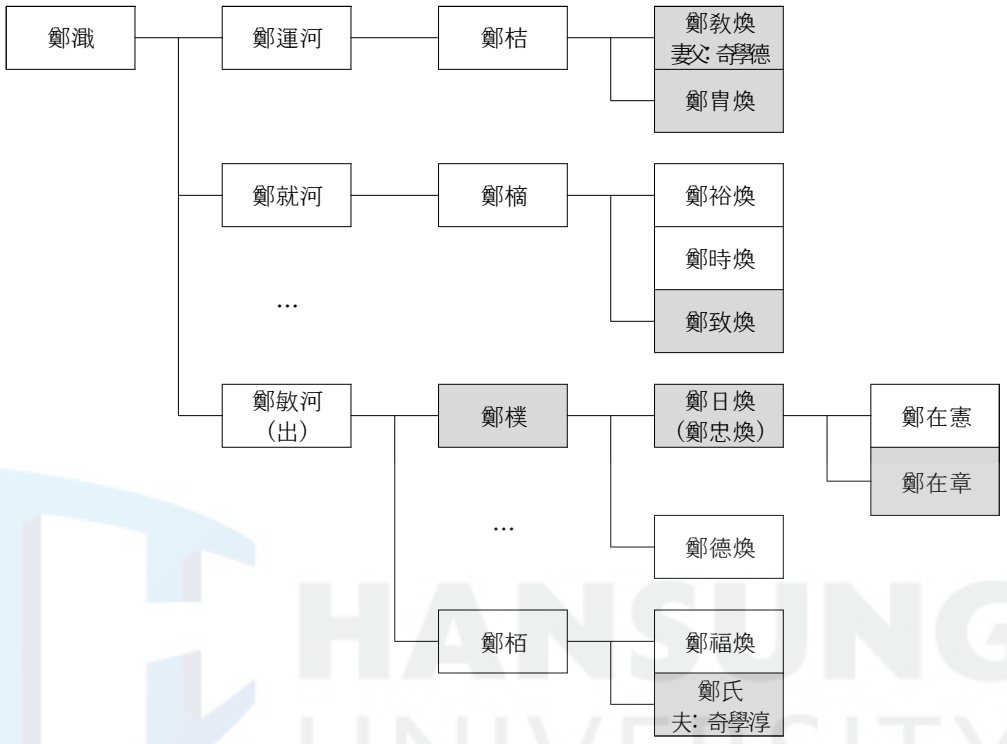
1787년(정조11) 유림색장으로 선발되었던 정교환(鄭敎煥)은 처가가 행주기씨로 기학덕(奇學德)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정교환의 처부(妻父)인 기학덕은 기대승 후손에 해당하는 행주기씨의 인물로 필암서원 원임을 담당한 적은 없었으나 그 형제인 기학순(奇學淳)이 1774년에 기대승 후손 중에 최초로 유림색장으로 임명된 인물이었다. 또한 기학덕은 처가가 광산김씨였으며, 기학순은 처가가 연일정씨로 정백(鄭栢)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된다. 기학순의 처부인 정백 역시 정철의 후손에 해당한다. 정백의 형제인 정박(鄭樸)은 1768년(영조44) 김제군수로 재임하면서 필암서원 진신장의를 역임했으며, 1774년 필암서원 유림장의를 역임했던 정일환의 친부(親父)였다.[70] 이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HANSUNG UNIVERSITY

69) 『乙酉式年司馬榜目』, 1765.

70) 각 인물들 간의 혼인관계는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司馬榜目』, 『만가보(萬家譜)』, 『행주기씨세보(幸州奇氏世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그림3-1〉 연일정씨 행주기씨 관계도



※ 짙은 색은 필암서원 원임을 역임했던 인물을 표시한 것이다.

이를 보았을 때 연일정씨는 행주기씨 기대승 가문과 함께 혼인관계를 통해 1774년에 필암서원 원임으로 처음 유입되었으며, 1768년 필암서원 진신장의를 역임했던 정박이 이를 주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두 성관이 필암서원 원임으로 유입된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 그것은 배향자 김인후의 문묘종향 운동과 관련이 있다.

당시 필암서원 원임들을 비롯하여, 장성지역 양반들과 호남지역 양반들까지 김인후를 문묘에 종향할 것을 요청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필암서원에서는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1771년(영조47) 원장직에 중앙 관료 요직을 역임했었던 김원행(金元行)을 추대하기도 했으며, 같은 해에 호남지역 유생 양학연(梁學淵) 등이 상소하여 김인후의 문묘 종향을 청하기도 하였다.[71] 이러한 분위

71) 각주 55번 참조.

기에 따라 필암서원은 김인후와 연관이 있으면서도 중앙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었던 정철, 기대승 가문의 인물들을 원임으로 선발해 김인후 문묘 종향을 위한 인적 연결망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즉 연일정씨의 원임 유입은 필암서원이 김인후 문묘 종사라는 향촌 활동을 성공시키려는 목적으로 중앙과의 연결을 확보한다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원임 구성에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장흥고씨의 유입은 중앙과의 연결이라는 정치적인 목적과는 관계없이 원임 구성에 변화가 발생한 사례에 해당한다. 장흥고씨는 본래 김인후의 제자였던 고경명이 속한 가문으로 필암서원과도 관련이 없지 않았으나 서원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원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 후반부터 장흥고씨 인물들도 필암서원 원임에서 확인되기 시작한다.

장흥고씨가 유림장의 또는 유림색장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1781년(정조 5) 유림색장으로 임명된 고시채(高時采)이다. 그는 고경명의 8대손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으며, 처가가 행주기씨로 기동상(奇東相)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기동상은 1755년 유림색장에 선발되었던 인물로 장흥고씨의 유입은 유력 가문과의 혼인을 통해 처음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외에도 장흥고씨 인물들은 필암서원 원임을 배출하는 유력 가문들과 혼인관계가 확인된다. 1802년(순조2) 유림색장으로 선발된 고정진(奇東相)은 외가가 연일정씨였으며, 처가가 행주기씨로 기학록(奇東相)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또한 1805년(순조5) 유림장의로 임명된 기상풍(奇象豊)은 외가가 장흥고씨였고, 1890년 유림장의에 선발된 고광수(高光壽)는 그 형제인 고광국(高光國)이 울산김씨와 혼인관계를 맺기도 했다.[72]

이처럼 장흥고씨는 행주기씨와의 혼인관계를 통해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행주기씨, 연일정씨, 울산김씨 등과 혼인관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혼인을 통한 성관의 유입으로 원임 구성에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연일정씨, 장흥고씨와 같은 새로운 성관의 유입은 결국 기존 성관이 원임을 배출하는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

72) 각 인물들 간의 혼인관계는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司馬榜目』, 『만가보(萬家譜)』, 『행주기씨세보(幸州奇氏世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광산김씨와 황주변씨의 원임 배출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는 신규 성관 유입에 따른 반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원임을 배출한 성관과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원임을 배출한 성관들을 중심으로 원임 성관 구성과 시기별로 나타나는 변화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필암서원 원임으로 등장하는 성관은 총 36개로 다수의 성관에서 원임을 1명 이상 배출하였으며, 소수의 원임을 배출한 성관이 전체의 약 21% 정도에 해당하여 적지 않은 수치를 보인다.[73]

그렇다면 필암서원 원임 구성에 있어서 소수의 원임을 배출한 다양한 성관들이 확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서원 및 향촌지역의 양반활동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원임 선발이 있었다. 이는 김인후의 문묘종사를 청원하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1786년 당시 유림장의 3명 중 2명을 한양에 거주하는 풍양조씨 조진규(趙鎭奎)와 안동권씨 권태응(權太應)으로 선발해 김인후 문묘 종사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유림장의 선출 방식에 따라 나타난 결과적인 측면이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 유림장의는 선발 목적과 그 규정에 따라 전라도 지역 내에서 명망과 연륜이 있으며, 소과(小科) 합격자이거나 관과의 연결점이 있는 인물을 선발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림장의에 선발된 인물이 장성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1790년 영광지역에 거주하는 영천이씨 이후근(李厚根)이 유림장의로 선발된 것이나, 1834년 순창지역에 거주하는 서산유씨 유형열(柳衡烈)이 유림장의로 선발된 것 등을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어느 정도 능력에 따른 원임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 양반들은 토지의 규모나 선현(先賢)의 위상, 과거합격자 배출 유무 등에 따라 사회적인 지위가 변동되는 불안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74] 이러한 이유로 지역 양반들은 유력한 양반집단과 그렇지 않은 양반집단이 병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암서원 유림색장에는 지역 내에서 유력한 성관에 해당하지 않는 성관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73) [부표2] 필암서원 유림장의 및 유림색장 시기별·성관별 분포 정리표 참조.
74) 미야지마 히로시. (2014). 『양반』. 서울: 너머북스.

대표적으로 1761년 유림색장으로 임명된 나주오씨 오후원(吳厚源)이나 1879년과 1881년에 연속해서 유림색장으로 임명된 수원백씨 백낙정(白樂鼎) 등을 말할 수 있다. 유림색장은 제향이나 강학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원생들의 상벌을 부과하는 등 서원 운영에 있어 중요한 직책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물들의 사례는 지역 내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력성관에서 유림색장 직임을 독점했던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소수 성관에게도 그 기회가 돌아갈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필암서원 원임의 성관 구성은 지속적으로 원임을 배출한 성관, 상대적으로 다수이나 특정 시기에만 원임을 배출한 성관, 소수의 원임을 배출한 성관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행주기씨와 울산김씨는 조선후기에 걸쳐 필암서원 원임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면서도 그 점유율이 전체의 25% 내외에 머무르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원임을 배출한 밀양박씨, 광산김씨, 황주변씨, 연일정씨, 장흥고씨 등이 확인되며, 이들은 김인후 문묘종사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유입이나 혼인을 통한 유입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원임 배출하는 양상이 시기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는 소수 원임을 배출한 26개 성관들이 확인된다. 이들은 정치적 목적, 과거 합격 여부, 행정적 능력 등 다양한 이유로 원임이 되었으며, 그 점유율이 전체의 약 21% 정도에 해당하고 있었다.[75]

이러한 결과는 조선후기 서원의 운영 주도권을 특정 문중이 독점하거나 서원이 문중의 지위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변모되지 않았던 사례를 보여준다. 또한 조선후기 서원의 변화가 당파 또는 향전으로 인해 양반들이 와해되는 부정적인 결과만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의 연결을 확보하여 향촌 양반들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거나 지역에 새로 유입된 양반들이 기존 양반들과 결속을 형성하는 장소로 작용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러 성관들이 다양한 이유에 따라 원임으로 선출되는 모습은 서원이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향촌 양반들이 공동체적 활동을 전개하는 공간으로 운영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75) [부표2] 필암서원 유림장의 및 유림색장 시기별·성관별 분포 정리표 참조.

제 4 장 맺음말

조선후기 서원은 지역 양반들이 출입하며, 향촌 교화를 위해 교육, 제향 및 단체활동을 전개하던 대표적인 향촌조직이었다. 서원활동에 참여하는 양반들은 서원 운영을 위해 원임(院任)을 선발하였고, 이들은 서원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서원과 관련한 대소사를 주관하였다. 또한 각 원임 직책은 향촌 내 또는 국가에서 특정한 위상을 갖춘 인물들 중에 선발되었다. 본고에서는 장성지역 필암서원 『執綱案』에 수록된 원임 명단을 분석하여 조선후기 서원운영에 참여한 지방 양반들의 구성과 주도세력의 변동추이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양반들의 서원 출입 및 참여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필암서원 원임은 원장-원이-진신장의-유림장의-유사 체제로 구성되었다. 필암서원 「舊院規」를 확인했을 때 각 직책들은 서로 다른 선발기준과 역할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직책에 따라 선임 대상의 지역적 범위가 구분되어 있었다. 원장은 경향(京鄕)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한 반면, 유림색장은 서원 인근에 거주하는 유림 중에서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즉, 원장에서 유사에 이르기까지 직책의 위계에 따라 선임범위 역시 지역 내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원임 구성 및 규정은 원장-유사 체제로 운영되고 향촌 유림 중에 원임을 선발하였던 영남지역 서원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필암서원 원임 구성 방식은 각 직책에 선임된 인물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그 특징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원장의 경우 17~19세기 동안 총 7명이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정3품 이상 중앙관료를 역임했던 인물이었다. 또한 이들은 이이(李珥)부터 이어지는 공통된 학맥을 가지는 동시에 각 시기에 따라 서인-노론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원임 직책에 중앙 관료 인사를 선임하는 경향은 원이와 진신장의를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원이는 19세기에만 총 5명이 선임되었는데 이 중에서 4명이 현직 전라감사 또는 광주목사 재임 중에 원이로 선발되었다. 진신장의의 경우 필암서원 『執綱案』을 분석한 결과 전체 59명중 56명이 장성부사·담양부사·김제군수·남평현감 등을 역임했던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장성 또는 인근

지역의 현직 수령이었다.

또 다른 원임 직책인 유림장의와 유림색장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유림장의의 경우에는 전체 90명 중 4명만이 전현감 등의 관직을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 생원·진사·유학 등으로 나타난다. 유림색장 또한 관직 경력이 확인되는 인물은 2명에 그쳤고, 대부분이 유학으로 나타났다. 이는 필암서원이 원장, 원이, 진신장의 직책에는 중앙 관료를 선임하고, 유림장의, 유림색장, 유사 직책에는 향촌 유림을 선임하는 이원적인 원임 구성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원적인 원임 구성은 '경원장제(京院長制)' 또는 '경유사제(京有司制)'라 불리는 기호·호남지역 서원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서원 운영 방식은 조선후기 서원이 중앙과의 연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필암서원에서도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장성 및 인근지역 수령을 진신장의로 선임함으로써 수령과 서원간의 연결점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후기 서원을 중앙과 대립하는 독립된 지방양반의 향촌 조직이나 붕당 활동의 거점으로 이해해 온 기존의 시각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었다. 오히려 필암서원에서는 중앙관료와 지방의 수령, 지역의 양반들이 함께 서원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서원이 지방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하였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임 구성 방식만으로는 지역 양반들의 서원 출입 양상과 주도세력의 존재, 운영층의 변화과정을 충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제 지역에서 활동했던 원임 직책인 유림장의와 유림색장의 성관구성을 함께 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본 이원적인 원임 구성 방식을 통해서는 조선후기 중앙과 서원이 지속적으로 연결망을 유지하는 모습을 살펴 보았다면, 유림장의와 유림색장의 성관구성은 서원 내부에서 활동한 양반 가문들의 참여양상과 주도세력의 존재양태를 보여주었다.

필암서원 『執綱案』에 기록된 유림장의와 유림색장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각각 106명과 129명이 확인된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았을 때 주목할 만한 점은 유림장의 직책이 18세기 중반에 비해 18세기 후반에 급격한 인

원 증가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에 1명씩 선임하던 유림장의를 1774년부터 2~3명씩 선임하는 방식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유림장의 선임 수가 증가했던 것은 필암서원 및 장성지역 양반들이 추진했던 김인후 문묘종사 활동과 관련이 있다. 당시 필암서원을 비롯한 호남지역 유생들은 김인후의 문묘종사를 위해 상소문을 작성하기도 했으며, 필암서원 원장 직책에는 중앙 관료 요직을 역임했었던 김원행과 김이안, 김종수 등을 추대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1786년에는 유림장의가 3명이 임명되었는데 그중 2명을 한양에 거주하는 인물로 선임하여 김인후의 문묘 종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필암서원 원임을 가계별로 살펴보면 총 36개 성관이 확인되고 이 중에서도 행주기씨와 울산김씨는 전체 원임의 약 25%를 배출하며 조선후기 동안 지속적으로 원임을 역임한 성관으로 나타난다. 두 성관이 필암서원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광산김씨, 밀양박씨, 황주변씨 등 지역의 유력 성관들은 다른 성관들보다 많은 수의 원임을 역임하기는 했으나 조선후기 동안 지속적으로 원임을 배출하지는 못하였다. 즉, 필암서원은 행주기씨와 울산김씨가 주도적으로 서원 운영에 참여하는 가운데, 다른 성관에서는 특정 시기를 전후하여 유입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기존 연구에서 설명하는 서원의 문중화 현상과 같이 특정 가문이 서원 운영을 독점하는 형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유림장의의 성관별 인원 비율을 보았을 때 행주기씨와 울산김씨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관이 각각 전체의 10% 미만으로 확인되며, 유림장의에만 28개 성관이 등장한다. 이는 다양한 가문에서 원임을 1회 이상 배출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은 유림색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이상의 시기별·성관별 분석을 통해 행주기씨, 울산김씨가 필암서원 운영의 주도세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문중서원이라고 설명할 만큼 특정 가문이 서원 운영을 독점한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양한 성관이 지속적으로 원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 양반 가문들의 서원 출입 지속과 변화 양상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가문과 개인의 행적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서원 운영의 주도세력에 해당하는 행주기씨는 장성지역에 집성촌을 형성

한 양반 가문으로 김인후의 제자였던 기효간(奇孝諫)이 필암서원 건립에 참여하면서 건립 초기부터 서원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필암서원 원임으로 선발된 행주기씨 31명 중 70%에 해당하는 22명이 기효간의 후손으로 드러난다. 이와 더불어 행주기씨는 1774년을 기점으로 기효간 가문 외 기대승(奇大升) 가문의 유입이 확인된다. 이들은 필암서원 원임으로 선발된 행주기씨 31명 중 25%인 8명의 원임을 배출하였다.

울산김씨는 필암서원 배향자인 김인후의 본손(本孫)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서원 건립 초기부터 서원 운영에 참여하였다. 실제로 필암서원 원임으로 선발된 울산김씨 26명이 모두 김인후의 후손에 해당하여 본손으로서 서원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울산김씨가 19세기에 들어 유림장의 직책을 거의 역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울산김씨가 서원 운영에 참여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림장의는 호남지역에서의 영향력과 지역 내 명망, 소과(小科) 합격자, 관(官)과의 연결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하는 특성에 따라 특정 성관이 유림장의를 독점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또한 강수청이 설립된 1775년부터는 본손인 울산김씨에서 장재유사 직책을 전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동안 유림장의를 배출하는 비중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원임을 꾸준하게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원임을 배출했던 광산김씨, 밀양박씨, 황주변씨 세 성관에 주목했다. 이들은 모두 필암서원 인근에 집성촌을 형성한 유력 양반 가문으로 서원 건립 초기부터 서원 운영에 참여한 성관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은 행주기씨, 울산김씨와는 다르게 시기별로 원임을 배출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황주변씨와 광산김씨는 18세기 중반까지 전체 원임 중 10%이상을 배출하였으나 18세기 후반부터는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당시 기대승계 행주기씨 계파 및 연일정씨, 장흥고씨 두 성관의 유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중 연일정씨의 유입은 기대승계 행주기씨의 유입과 더불어 김인후의 문묘 종사 활동과 연관이 있었다. 당시 연일정씨는 혼인관계를 통해 행주기씨

계파와 함께 필암서원 원임으로 유입되었는데 두 성관은 각각 김인후의 제자이거나 그와 교류를 지속했던 정철, 기대승의 가문에 해당한다. 즉 필암서원은 당시 김인후와 연관이 있으면서도 중앙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던 정철, 기대승 가문의 인물들을 원임으로 선임하여 김인후 문묘 종향을 위한 인적 연결망을 확장하고자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장흥고씨는 필암서원 유력가문인 행주기씨와의 혼인을 통해 18세기 후반부터 필암서원 원임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필암서원 원임 중 일부 성관은 18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일부 성관은 18세기 후반에 처음 유입되어 이때부터 필암서원 원임을 배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유력 성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필암서원 유림장의·유림색장에는 총 36개 성관이 등장해 다수의 성관에서 원임을 1명 이상 배출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5명 이하 원임을 배출한 소수 성관이 전체의 약 21%를 차지해 그 비율이 적지 않았다. 필암서원 원임으로 다양한 성관들이 참여했던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서원 및 향촌지역의 단체활동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원임 선발이 있었고, 둘째는 유림장의 선출 방식에 따라 나타난 결과적인 측면이 있으며, 셋째는 어느 정도 능력에 따른 원임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지역 내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력성관에서 원임 직책을 독점했던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소수 성관에게도 그 기회가 돌아갈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필암서원에서는 조선후기 서원에 대한 양반들의 출입이 단절되는 경향이나 특정 문중만이 서원 운영을 독점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수령 및 중앙 관료를 원임으로 선발하는 이원적인 원임 구성을 통해 중앙과의 연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내부적인 운영층 존재양태의 변화는 양반세력간의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기보다 혼인을 통한 유입이나, 향촌 내 정치적인 동향 등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그 과정에서도 기존의 유력 성관에서 지속적으로 서원 운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후기 서원이 특정 문중을 중심으로 재편되거나 양반 출입이 점차 감소하였다는 기존 연구의 설명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영남지역 서원 사례에서 확인되는 지역 양반간의 갈등과 주도세력의 급격한 변화 양상 역시 필암서원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필암서원은 조선후기에도 중앙과 지방 수령, 지역 양반사회 사이의 인적 연결망을 유지하였으며, 소수 유력 성관의 주도가 지속되는 양상 속에서 그 외 다양한 양반 가문들이 일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던 향촌 기구였다. 이와 같은 양상이 필암서원에서만 국한된 것인지, 조선후기 서원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HANSUNG UNIVERSITY

참 고 문 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筆巖書院誌』

『執綱案』

『長城邑誌』

『國朝文科榜目』

『萬家譜』

2. 단행본

장성군. (2001). 『장성군사』. 장성: 장성군청.

미야지마 히로시. (2014).『양반』. 서울: 너머북스.

윤희면. (2004).『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서울: 집문당.

이수환. (2001).『朝鮮後記 書院硏究』. 서울: 일조각.

이해준. (2008).『朝鮮後記 門中書院 硏究』. 서울: 경인문화사.

정만조. (1997).『朝鮮時代 書院硏究』. 서울: 집문당.

정진영. (1998).『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서울: 한길사.

3. 학술연구

권기중. (2025). 필암서원. 『2025년 세계유산 한국의서원 학술포럼 -한국의 서원 인물자료 현황과 분석-』,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김명자. (2014). 조선후기 병산서원 원장 구성의 시기별 양상. 『한국서원학보』6, 한국서원학회.

김순한. (2023). 조선후기 상주 옥동서원 원임의 구성과 변화. 『한국서원학보』16, 한국서원학회.

김승대. (2020). 부안 동림서원의 건립과 변천에 대한 연구 -『동림서원지』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0, 한국실학학회.

김봉곤. (2014). 필암서원과 울산김씨. 『한국계보연구』 5, 한국계보연구회.

김영나. (2015). 16~18세기 안동지역 사족의 호계서원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문숙자. (2009). 조선후기 노비 가계와 비 -필암서원 노비보 분석을 통하여-. 『여성과 역사』 11, 한국여성사학회.

박소희. (2020). 17세기 덕천서원 원생의 구성과 변화양상 -『덕천원생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7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박현순. (2007). 17~18세기 예안현 사족사회와 향안, 원생안, 교생안. 『고문서연구』 30, 한국고문서학회.

신동훈. (2015). 16세기 서원 사액과 국가의 서원 정책. 『역사와 현실』 98, 한국역사연구회.

안다미. (2023). "조선후기 서원정책과 사족의 서원활동".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희면. (2001). 전라도 장성 필암서원의 정치사회적 기능. 『역사학연구』 17, 호남사학회.

이경동. (2019). 조선후기 여산 죽림서원의 운영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9, 한국서원학회.

_____. (2022). 조선시대 논산지역 서원의 운영과 특징. 『민족문화논총』 8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_____. (2024). 조선시대 필암서원의 운영과 재정. 『대동한문학』 79, 대동한문학회.

이병훈. (2023). 경주 옥산서원의 설립과 재정 운영. 『대동한문학』 75, 대동한문학회.

이수환. (2000). 18-19세기 경주 옥산서원 원임직 소통을 둘러싼 적서간의 향전. 『고문서연구』 16, 한국고문서학회.

이정우. (1999). 17-18세기 재지 노·소론의 분쟁과 서원 건립의 성격 -충청도 논산지방 광산김씨와 파평윤씨를 중심으로-. 『진단학보』88, 진단학회.

장석현. (2023). 조선후기 임실현 양반사회의 지속과 변화 -『임실향안』, 『임실청금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105, 조선시대사학회.

전형택. (1996). 조선후기 필암서원의 경제기반과 재정. 『역사학연구』11, 호남사학회.

정재훈. (2023). 조선후기 용산서원의 운영양상과 그 특징. 『한국서원학보』16, 한국서원학회.

정진영. (2015). 18세기 서원 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 -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 서원 건립 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72, 조선시대사학회.

조상순. (1998). 필암서원 연구 -필암서원지 해석을 중심으로-.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31,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준호. (2010). 서원지 분석을 통해 본 초기 서원의 성격 -죽계지, 영봉지, 오산지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3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최주희. (2025). 19세기 전반 도산서원의 재정 운영 실태. 『민족문화연구』10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부 록

[부표1] 『官方要覽』 官職 附外官案 全羅道[76]

	地名	戶	田(結)	軍	倉		地名	戶	田(結)	軍	倉
1	羅州	20,300	28,200	17,700		29	礪山	4,600	5,200	3,400	
2	全州	19,600	21,300	22,700		30	寶城	4,500	8,300	4,000	
3	興陽	18,000	8,400	5,600	2	31	萬頃	4,400	4,200	1,400	
4	靈光	12,900	17,300	6,800		32	光陽	4,400	2,900	1,800	1
5	南原	10,800	13,200	8,300		33	臨陂	4,200	8,400	5,700	
6	康津	10,600	9,800	5,300		34	沃溝	4,200	6,300	2,200	
7	長興	10,300	10,200	4,200		35	高山	4,100	3,800	2,800	
8	靈巖	9,000	14,000	4,600		36	益山	3,900	5,100	2,600	
9	光州	8,300	11,300	6,400		37	金溝	3,900	5,200	3,000	
10	珍島	8,100	5,800	5,600		38	順天	3,800	11,900	9,900	
11	海南	8,100	11,600	5,600	4	39	長水	3,500	2,800	2,800	
12	泰仁	7,700	9,700	5,800		40	龍潭	3,400	1,600	1,700	
13	咸平	7,500	11,700	4,200		41	咸悅	3,200	4,400	3,100	2
14	濟州	7,200				42	珍山	3,100		1,200	
15	扶安	6,900	8,700	3,800		43	谷城	2,900	2,900	1,800	
16	淳昌	6,800	6,400	6,900		44	樂安	2,800	3,300	1,600	
17	長城	6,600	9,200	3,700		45	興德	2,800	4,600	1,300	
18	古阜	6,500	8,800	4,100		46	井邑	2,300	3,100	1,500	
19	茂長	6,400	13,000	4,400	3	47	高敞	2,300	3,000	1,100	
20	錦山	6,300	5,900	4,900		48	玉果	2,200	2,600	1,600	
21	務安	6,300	4,800	2,500		49	同福	2,000	2,400	1,400	
22	潭陽	6,100	6,500	2,900		50	昌平	1,900	2,500	1,500	
23	茂朱	5,800	3,300	2,800		51	求禮	1,900	2,100	1,400	
24	金堤	5,800	19,000	6,500		52	雲峯	1,800	2,300	1,700	
25	鎭安	5,700	3,400	2,400		53	和順	1,700	1,900	1,000	
26	任實	5,400	4,800	1,600		54	旌義	1,600			
27	南平	5,100	5,800	2,500		55	龍安	1,600	1,900	1,200	
28	綾州	4,700	4,400	2,800		56	大靜	1,000			

76) 장석현. (2020). “조선후기 지방양반의 향촌운영과 향권의 동향 -전라도 임실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6쪽 참조.

[부표2] 필암서원 유림장의 및 유림색장 시기별·성관별 분포[77]

(단위 : 명)

연번	성씨	본관	인원 분포				비율
			17C	18C	19C	합계	
1	고씨(高氏)	장흥(長興)	0	2	11	13	5.5%
2	곽씨(郭氏)	청주(淸州)	0	1	0	1	0.4%
3	권씨(權氏)	안동(安東)	0	1	0	1	0.4%
4	기씨(奇氏)	행주(幸州)	0	13	18	31	13.2%
5	김씨(金氏)	광산(光山)	0	12	4	16	6.8%
6		울산(蔚山)	0	17	9	26	11.1%
7		의성(義城)	2	0	0	2	0.9
8		미상	0	4	4	8	3.4%
9	나씨(羅氏)	나주(羅州)	0	0	1	1	0.4%
10	노씨(盧氏)	풍천(豊川)	0	0	1	1	0.4%
11	박씨(朴氏)	밀양(密陽)	2	4	10	16	6.8%
12		반남(潘南)	0	0	1	1	0.4%
13		순천(順天)	0	3	1	4	1.7%
14		미상	0	1	1	2	0.9%
15	백씨(白氏)	수원(水原)	0	2	2	4	1.7%
16	변씨(邊氏)	황주(黃州)	0	10	4	14	6%
17	송씨(宋氏)	신평(新平)	0	0	1	1	0.4%
18		진천(鎭川)	0	6	7	13	5.5%
19		미상	0	0	1	1	0.4%
20	신씨(愼氏)	거창(居昌)	0	1	0	1	0.4%
21	신씨(申氏)	고령(高靈)	0	7	3	10	4.3%
22	안씨(安氏)	죽산(竹山)	0	0	1	1	0.4%
23	양씨(梁氏)	제주(濟州)	0	2	0	2	0.9%
24	오씨(吳氏)	나주(羅州)	0	3	1	4	1.7%
25	유씨(柳氏)	문화(文化)	0	5	3	8	3.4%
26		서산(瑞山)	0	0	3	3	1.3%
27		미상	0	2	0	2	0.9%
28	이씨(李氏)	광산(光山)	2	0	1	3	1.3%
29		연안(延安)	0	0	2	2	0.9%
30		영천(永川)	0	1	0	1	0.4%
31		전주(全州)	0	2	2	4	1.7%
32		함평(咸平)	0	1	1	2	0.9%
33		미상	0	2	5	7	3%
34	임씨(林氏)	나주(羅州)	0	1	0	1	0.4%
35		미상	0	1	0	1	0.4%
36	임씨(任氏)	풍천(豊川)	0	1	0	1	0.4%
37	정씨(鄭氏)	연일(延日)	0	4	8	12	5.1%
38		진주(晋州)	0	0	5	5	2.2%
39		미상	0	1	3	4	1.7%

77) 필암서원 『執綱案』에 기록된 이름과 생년, 자, 본관 등을 토대로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만가보(萬家譜)』, 『행주기씨세보(幸州奇氏世譜)』, 『장성읍지』, 『2025년 세계유산 한국의서원 학술포럼-한국의 서원 인물자료 현황과 분석-』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연번	성씨	본관	인원 분포				비율
			17C	18C	19C	합계	
40	조씨(趙氏)	풍양(豊壤)	0	1	0	1	0.4%
41		한양(漢陽)	0	1	0	1	0.4%
42	최씨(崔氏)	해주(海州)	0	0	1	1	0.4%
43	홍씨(洪氏)	미상	0	1	0	1	0.4%
44	황씨(黃氏)	평해(平海)	0	0	1	1	0.4%
합계			6	113	116	235	100%

※ 본관이 미상인 인물은 모두 26명이다.

HANSUNG UNIVERSITY

ABSTRACT

The Composition of Wonim and the Nature of Leading Groups in Pilam Seowon, during the Late Joseon
-A Study Focused on Pilam Seowon Jipgangan-

Kim,Chanwool

Major in Korean History

Dep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Seowon in the Joseon Dynasty were representative Confucian institutions that served as centers of education, ritual commemoration, and social activities for local Yangban elites. Previous studies on late Joseon Seowon have largely focused on local disputes, factional conflicts, and the process of lineage-centered reorganization, emphasizing the decline of seowon functions and their domination by particular kinship groups. As a result,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actual composition of Seowon operating personnel and the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of their leadership groups. Furthermore, since most

previous studies have concentrated on cases from the Yeongnam region, additional research on Seowon outside Yeongnam is necessary.

This study examines the composition of Wonim and the nature of leading groups in Pilam Seowon in Jangseong through an analysis of the Jipgangan (執綱案), a register of appointed Wonim. The Jipgangan records Wonim appointments from 1670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making it possible to trace long-term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the Seowon's operating personnel. This study utilizes the Jipgangan together with the PilamSeowonji, Wonjeok, local gazetteers, genealogical records, and other related sources.

The results show that the Wonim system of Pilam Seowon consisted of several positions, including Wonjang, Woni, Jinsinjangui, Yurimjangui, Yurimsaekjang, and Yusa, each with distinct qualifications and responsibilities. Higher-ranking positions such as Wonjang, Woni, and Jinsinjangui were generally occupied by central officials or local magistrates from outside the region, whereas Yurimjangui, Yurimsaekjang, and Yusa were selected from among local Confucian elites in Jangseong. In particular, all Wonjang were former high-ranking central officials, while Woni were often prominent provincial administrator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ilam Seowon maintained extensive connections with both central political authorities and reg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distinguishing it from some Seowon in the Yeongnam region that were operated primarily by local elites.

An examination of the surname composition of Yurimjangui and Yurimsaekjang reveals that various surname groups participated in the operation of Pilam Seowon. Although no single lineage monopolized Wonim positions, several influential surname groups—including the Haengju Gi, Ulsan Kim, Gwangsan Kim, and Hwangju Byeon clans—formed the core leadership of the institution. These families had

long-established settlements near Pilam Seowon and played important roles in its foundation and operation. In particular, members of the Haengju Gi and Ulsan Kim clans continuously served as Wonim across multiple generations.

However, the presence of these leading groups did not result in exclusive control by a specific lineage. While influential surname groups maintained their positions within the Seowon's leadership, new groups and individuals continued to enter the operating structure. During the late eighteenth century,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the movement to enshrine Kim Inhu in the Confucian shrine, the number of Yurimjangui increased and opportunities for broader participation expanded. Marital ties and political changes within local society also played important roles in shaping the composition of the operating personnel.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Pilam Seowon did not experience a significant decline in elite participation or a complete transformation into a lineage-dominated institution. Rather, it continued to function through a broad human network linking central officials, local magistrates, and local yangban elites. While a small number of influential surname groups played leading roles, various yangban familie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operation of the Seowon. By analyzing the Jipgangan of Pilam Seowon, this study contributes to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the composition and transformation of Seowon operating personnel and provides a regional perspective that complements existing interpretations of late Joseon Seowon.

【Key-words】Seowon(書院), Pilam Seowon(筆巖書院), Jipgangan(執綱案), Wonim(院任), Seowon Operating Personnel, Late Joseon Seowon